차 례

1. 자랑스러운 우리 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은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이다.

우리 말은 첫째로,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우리 말이 류창하고 아름다운것은 무엇보다도 말소리가 풍부하기때문이다.

우리 말에는 말소리가 모두 40개나 되는데 그가운데서 모음 21개 전체가 울림소리이며 자음가운데도 울림소리자음이 4개(ㄴ, ㄹ, ㅁ, ㅇ)로서 울림소리가 전체 말소리의 62.5%이다. 이것은 우리 말을 유순하고 류창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

우리 말이 류창하고 아름다운것은 또한 말소리흐름속에 열린소리마디와 반열린소리마디가 닫긴소리마디보다 더 많으며 말소리변화가 발음을 순탄하게 해주기때문이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하느른 푸르고 내 마음 즐겁따
손풍금쏘리 울려라
사람들 화모카게 사는
내 조국 하넙시 존네〕

여기에는 모두 37개의 소리마디가 있는데 열린소리마디가 23개, 닫긴소리마디가 14개로서 열린소리마디가 더 많으며 14개의 닫긴소리마디가운데에도 완전한 닫긴소리마디는 《겁, 국, 넙》 3개뿐이고 나머지 11개는 《ㄴ, ㄹ, ㅁ, ㅇ》과 같은 울림소리자음으로 끝난 반열린소리마디이다. 결국 37개의 소리마디에서 열린소리마디와 반열린소리마디가 34개로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있다.

《혁명》과 같은 단어의 《혁》은 그자체만으로서는 완전한 닫긴소리마디이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에는 〔형명〕으로 변하기때문에 발음이 부드러워진다.

우리 말은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이 음악적으로 잘 다듬어져있어 소리의 흐름에 굴곡이 생기기때문에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

우리 말은 둘째로, 표현이 풍부하다.

우리 말이 표현이 풍부한것은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토가 잘 발달되여있기때문이다.

우리 말에는 수십만을 헤아리는 어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도달한 모든 과학기술성과와 복잡하고 섬세한 사상감정을 나타낼수 있는 단어와 표현들이 다 들어있다.

붉은 색갈을 나타내는 단어만 보더라도 색갈의 짙고열은 차이, 밝고어두운 차이, 순수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붉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발갛다, 벌겋다, 발가우리하다, 벌거우리하다, 빨긋빨긋하다, 뻘긋뻘긋하다, 발그족족하다, 벌그죽죽하다, 빨그스름하다, 뻘그스름하다, 발그스름하다, 벌그스름하다…》와 같이 수많이 세분화되여있다.

우리 말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고 시간과 수, 말차림과 이야기목적을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토들이 수백개나 있다. 때문에 단어는 그대로 두고 토 하나를 바꾸는 방법으로 《철수가 오고 영수가 온다.》, 《철수가 오면 영수가 온다.》, 《철수가 오니까 영수가 온다.》, 《철수가 오자 영수가 온다.》, 《철수가 와야 영수가 온다.》, 《철수가 오고 영수가 옵니다.》, 《철수가 와야 영수가 옵니까?》 등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수 있다.

우리 말은 셋째로,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다.

우리 말은 다른 나라 말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례절을 나타내는 수단과 수법이 잘 발달되여있다.

우리 말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여서 대하는가, 자기와 같은 급으로 대하는가, 낮추어서 대하는가에 따라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오.》, 《학교에 가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 말하는 사람이 행동, 상태, 사실의 주인을 높여서 대하는가, 낮추어서 대하는가에 따라 《할아버님 오신다.》, 《영수 온다.》와 같이 서로 달리 말할수 있다.

또한《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드리다》,《께서, 께, 시》등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와 토들이 발달되여있어 해당한 례절관계를 똑똑히 표현할수 있다.

우리 말은 넷째로,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우리 말이 발음이 매우 풍부한것은 말소리가 풍부하고 다양하기때문이며 특히는 소리마디가 많기때문이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하나하나의 말소리를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말소리들로 이루어지는 소리마디를 가지고 발음한다. 따라서 발음이 풍부한 언어로 되자면 소리마디가 많아야 한다.

우리 말에는 소리마디가 매우 많은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 말의 소리마디들과 발음에 맞먹는 소리마디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

우리 말처럼 소리마디가 그렇게 풍부한 언어는 없다.

우리 말은 소리마디가 량적으로 많고 다양하기때문에 우리 말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다.

이처럼 류창하고 아름다우며 표현이 풍부하고 례의범절을 잘 나타낼수 있을뿐아니라 발음이 또한 풍부한 조선말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의 높은 긍지이며 자랑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신 가장 우수한 우리 말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2. 단어와 그 뜻

우리가 하는 말과 쓰는 글은 모두 단어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어란 무엇인가.

단어란 물건이나 동식물, 움직임이나 모양 등을 이름지어 나타내는 말마디이다.

말마디 《책상》, 《곰》, 《진달래》, 《뛰다》, 《둥글다》를 례를 들어 단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말마디들을 보면 《책상》은 물건을 무엇이라고 이름지어 나타낸것이고 《곰》은 동물을, 《진달래》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이름지어 나타낸것이다. 또한 《뛰다》는 움직임을 어찌한다고 이름지어 나타낸것이고 《둥글다》는 모양이 어떠하다고 이름지어 나타낸것이다.

이와 같이 물건이나 그밖의것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어찌한다고, 어떠하다고 이름지어서 나타내는 말마디를 단어라고 한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쓰는 《학교, 하늘, 풀, 하나, 열, 이것, 무엇, 보다, 먹다, 희다, 달다, 빨리, 매우, 무슨, 모든, 얼씨구…》와 같은 말마디들이 모두 단어이다.

모든 단어는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단어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 키워준 녀자》를 나타내며 《산》은 《평지보다 훨씬 높은 곳》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단어가 나타내는 내용을 단어의 뜻이라고 한다.

모든 단어는 이미부터 정해진 소리와 정해진 뜻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겨누다》 대신 《견주다》를 써서 《총을 견주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옳은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겨누다》의 뜻을 《목표물을 맞히려고 방향과 거리를 잡다.》로, 《견주다》의 뜻을 《무엇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서로 비교하여보다.》로 리해해왔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매 단어는 정해진 말소리와 정해진 뜻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익히고 쓸 때에 바로 그 말소리가 담고있는 그 뜻대로 정확히 익히고 써야 한다.

《연필》과 같은 단어는 한개의 뜻만을 가지고있다.《연필》은 《글쓰는 도구》의 뜻 하나만 나타내고 다른 뜻은 더 나타내지 않는

다. 그러나 어떤 단어는 두개, 세개 또는 그 이상 여러개의 뜻을 가지고있다.

단어 《머리》를 보자. 《머리를 숙인다.》고 할 때에는 《사람의 몸에서 목우에 있는 부분을 숙인다.》는 뜻이며 《머리를 빗는다.》고 할 때에는 《머리카락을 빗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할 때에는 《두뇌의 사고능력이 좋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한 단어가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것을 한 단어의 여러 뜻이라고 한다. 어떤 단어나 맨 처음에는 한개의 뜻만을 가지고있었다. 우에서 례로 든 단어 《머리》도 맨 처음에는 하나의 뜻만을 나타내였다. 그러나 후에 《머리카락》이 머리의 한 부분이라는데로부터 점차 그것도《머리》라고 부르게 되였으며《사고하는 기관인 두뇌》가 다름아닌 머리안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차 두뇌를 가리켜서도 《머리》라고 부르게 되였다.

단어의 여러 뜻들가운데서 맨 처음부터 가지고있는 뜻을 본래의 뜻이라고 하며 후에 생겨난 뜻을 갈라진 뜻이라고 한다.

대체로 보면 말과 글에서는 본래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갈라진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그보다 적다. 그러나 언제나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지난날에는 본래의 뜻으로 많이 쓰이던 단어가 점차 갈라진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면 《요람》은 본래는 《젖먹이어린애를 올려놓고 흔들도록 되여있는 그네모양으로 만든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였다. 그러던것이 오늘날에는 그러한 본래의 뜻으로보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같이 《무엇이 처음으로 시작되거나 자라난 곳》을 나타내는 갈라진 뜻으로 더 자주 쓰이고있다.

이와 같이 단어의 여러 뜻들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이며 그 단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뜻을 기본뜻이라고 하며 그밖의 다른 뜻들을 부차적인 뜻이라고 한다. 단어 《요람》의 기본뜻은《무엇이 처음으로 시작되거나 자라난 곳》이며 부차적인 뜻은《어린애를 올려놓고 흔들도록 되여있는 그네모양의 물건》이다.

련습

1. 단어 《손》과 《가다》가 나타내는 뜻들을 아는대로 다 들고 그 뜻들로 쓰인 짧은글을 1개씩 지으시오.
2. 단어 《왕》과 《꽃봉오리》가 나타내는 뜻들을 다 말하고 그가운데서 기본뜻과 부차적인 뜻을 가려내시오.

3.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봄》이나 《아버지》와 같은 단어들은 그것을 더 작게 쪼개면 뜻이 없어진다. 《봄》을 《ㅂ》과 《ㅗ》와 《ㅁ》으로 쪼갠다든가 《아버지》를 《아버》와 《지》로 또는 《아》와 《버지》로 쪼개면 그것들은 아무런 뜻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은방울꽃》, 《씨름군》과 같은 단어들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쪼각들이 두개이상 합쳐져서 이루어졌기때문에 더 작게 쪼갤수 있다. 즉 《은방울꽃》은 《은+방울+꽃》의 세 부분으로 쪼갤수 있으며 《씨름군》은 《씨름+군》의 두 부분으로 쪼갤수 있다. 이때 얻어지는 부분들인 《은》은 《금과 더불어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흰 색갈을 띤 귀금속의 하나》, 《방울》은 《흔들면 소리가 나게 쇠나 구리 같은것으로 만든 자그마한 물건》, 《꽃》은 《나무나 풀에 아름답게 피여나는것》, 《씨름》은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남자들이 힘과 재주를 겨루기 위하여 해오던 민족경기의 하나》, 《군》은 《일군》, 《농사군》에서 보는바와 같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이 단어를 쪼개였을 때 얻어지는 뜻을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쪼각을 형태부라고 부른다. 우에서 례로 든 《봄》과 《아버지》는 한개의 형태부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은방울꽃》은 세개의 형태부로, 《씨름군》은 두개의 형태부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형태부는 뜻을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쪼각이기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쪼개면 아무 뜻도 나타내지 않게 된다.

형태부들가운데에는 《봄》, 《아버지》, 《은》, 《방울》, 《꽃》, 《씨름》과 같이 혼자서도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것이 있고 《씨름군》, 《일군》의 《군》과 같이 혼자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하는것

이 있다. 《씨름군》, 《일군》의 《군》은 혼자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형태부에 덧붙어서만 쓰인다.

형태부들가운데서 《봄》, 《아버지》, 《은》, 《방울》, 《꽃》, 《씨름》과 같이 혼자서도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것을 말뿌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씨름군》, 《일군》의 《군》과 같이 혼자서는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말뿌리에 덧붙어서 새 단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것을 덧붙이라고 부른다. 《씨름》이나 《일》에 《군》이 붙어서 이루어진 《씨름군》, 《일군》은 《씨름》이나 《일》과는 뜻이 다른 하나의 새로운 단어들이다.

덧붙이에는 《씨름군》, 《일군》의 《군》과 같이 말뿌리의 뒤에 붙는것과 《풋고추》, 《풋배추》의 《풋》과 같이 말뿌리의 앞에 붙는것이 있다. 말뿌리의 뒤에 붙는 덧붙이를 뒤붙이라고 부르며 말뿌리의 앞에 붙는 덧붙이를 앞붙이라고 부른다.

《씨름》에 《군》이 붙으면 《씨름군》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되지만 《씨름》에 《이》, 《의》, 《을》, 《에》, 《으로》와 같은것이 붙으면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되지 않는다. 《씨름》이나 《씨름이》, 《씨름의》, 《씨름을》, 《씨름에》, 《씨름으로》는 다같은 하나의 단어이다. 《이》, 《의》, 《을》, 《에》, 《으로》와 같은것들은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은 하지 않고 다만 그 단어를 뒤에 오는 다른 단어와 련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

《이》, 《의》, 《을》, 《에》, 《으로》와 같이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와 련결시켜주거나 그밖의 다른 역할을 하는 형태부를 토라고 부른다.

단어에서 토를 떼여버린 나머지부분을 줄기라고 한다.

줄기는 말뿌리만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말뿌리에 앞붙이나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질수도 있다. 《잎》은 말뿌리 하나로 이루어진 줄기이고 《풋잎》은 말뿌리에 앞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줄기이며 《잎사귀》는 말뿌리에 뒤붙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줄기이다. 그리고 《풋잎사귀》는 말뿌리에 앞붙이와 뒤붙이가 다 붙어서 이루어진 줄기이다.

련습

1. 다음단어들을 형태부들로 가르고 그 형태부들의 갈래를 말하시오.

   꽃답다, 못뽑이, 검푸른

2. 다음과 같은 형태부들이 결합되여 이루어진 단어를 각각 2개이상씩 찾으시오.

   ○ 앞붙이+말뿌리+뒤붙이
   ○ 말뿌리+뒤붙이
   ○ 말뿌리+말뿌리+뒤붙이
   ○ 앞붙이+앞붙이+말뿌리

4. 뜻같은말, 뜻반대말, 소리같은말

△ 뜻같은말

《길》과 《도로》를 비교해보면 이 단어들은 뜻이 비슷하기때문에 통하여 쓸수 있다. 례컨대《이 길로 가면 평양까지 간다.》대신 《이 도로로 가면 평양까지 간다.》고 해도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뜻같은말이라고 한다.

뜻같은말들가운데서 뜻이 완전히 꼭같은 뜻같은말은 극히 드물고 어딘가 조금씩 차이나는데가 있는 뜻같은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우에서 례로 든《길》과《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선《길》은 자동차가 다닐수 있는 넓은 길로부터 오솔길까지를 다 포함하여 나타내는 말이지만 《도로》는 자동차가 다닐수 있도록 잘 닦아놓은 넓은 길만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길》은 땅우에 난 길만이 아니라《비행기길》,《배길》과 같이 하늘이나 바다에서 비행기나 배가 정해놓고 다니는 길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뜻을 담고있다. 그러나《도로》에는 그런 뜻이 없기때문에 《비행기도로》,《배도로》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길》에는《통일의 길》,《사회주의에로 가는 길》과 같이 《방향》,《방도》의 뜻이 있는데 《도로》에는 그런 뜻이 없

다. 이와 같이 뜻같은말이라고 하여도 대체로 그것들은 뜻이 완전히 꼭같지는 않고 이러저러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 말에는 뜻같은말이 아주 풍부하게 잘 발달되여있다.

그 몇가지 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상—누리, 선생—스승, 기관단총—따발총—뚜르레기, 꼴—꼬락서니—모양, 아버지—아버님—아빠—애비

○ 꽤—아주—무척—매우—몹시—대단히, 모두—다—전부—모조리—죄다—깡그리

○ 참다—견디다—이겨내다, 베다—자르다—썰다

뜻같은말은 한 문장안에 같은 단어가 반복되여 쓰이는것을 피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한 문장안에 같은 단어가 여러번 반복되여 쓰이면 말과 글의 품위가 낮아지기때문에 문장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뜻같은말을 써서 그것을 피한다.

○ 항일유격대원들의 몰사격이 시작되자 일제놈들은 여기저기에서 <u>꺼꾸러지고</u> <u>자빠지고</u> <u>어푸러져</u> 뒈졌다.

○ 인민을 선생으로 부르시는분

그 <u>선생</u>의 <u>스승</u>은 **김정일**동지

뜻같은말은 또한 말과 글에서 어떤 표현을 강조하려고 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 가장 <u>흉악하고</u> <u>악랄하고</u> <u>잔인한</u> 미제살인귀들

△ 뜻반대말

《동쪽》과 《서쪽》, 《안》과 《밖》, 《아침》과 《저녁》, 《오다》와 《가다》, 《살다》와 《죽다》, 《곱다》와 《밉다》는 뜻이 반대되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뜻이 반대되는 단어들을 뜻반대말이라고 한다.

뜻반대말은 생각을 짧고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 <u>작은것</u>에서 <u>큰것</u>을 볼줄 알아야 한다.

○ 우리가 하는 혁명투쟁은 <u>사회주의</u>와 <u>자본주의</u>와의 투쟁이다.

뜻반대말은 단어의 뜻을 짧고 명백하게 풀이해주는데도 효과적으로 리용된다.

○ 《<u>작다</u>》는 《<u>크다</u>》의 반대이고 《<u>적다</u>》는 《<u>많다</u>》의 반대이다.

○ 《낮다》는 《높다》의 반대이고 《얕다》는 《깊다》의 반대이다.

△ 소리같은말

《말을 탄다》고 할 때의《말》과《말을 잘한다》고 할 때의《말》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딴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들을 소리같은말이라고 한다.

소리같은말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글을 쓰는것까지도 꼭같은 소리같은말이다. 우에서 례로 든 《말을 탄다》고 할 때의 《말》과 《말을 잘한다》고 할 때의 《말》이 그러하다. 이밖에도 《비와 눈》이라고 할 때의 《눈》과《눈과 코》라고 할 때의《눈》,《가슴과 배》라고 할 때의《배》와 《기차와 비행기와 배》라고 할 때의 《배》, 《사과와 배》라고 할 때의 《배》 그리고 《원쑤를 친다》고 할 때의 《치다》와 《울타리를 친다》고 할 때의 《치다》, 《도망을 친다》고 할 때의 《치다》, 《시험을 친다》고 할 때의 《치다》, 《제비가 새끼를 친다》고 할 때의 《치다》 등을 더 들수 있다.

둘째는 말할 때에만 소리가 같고 쓸 때에는 다른 소리같은말이다. 풀을 베는 도구인 《낫》과 밤의 반대말인 《낮》 그리고 《얼굴》과 뜻같은말인 《낯》이 그러하다. 이 단어들은 말할 때에는 소리가 꼭같지만 쓸 때에는 받침이 다르다. 이와 같은 례로서는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할 때의 《반드시》와 《모로 눕지 않고 반듯이 누웠다.》고 할 때의 《반듯이》 그리고 《높다》의 반대말인 《낮다》와 《우수하다, 괜찮다》의 뜻으로 쓰이는 《낫다》 등을 더 들수 있다.

셋째는 소리가 어떤 토를 붙였을 때에만 달라지고 다른 토를 붙였을 때에는 같아지는 소리같은말이다. 실례로 《땅을 파고》의 《파고》와 《물건을 팔고》의 《팔고》, 《땅을 파면》의 《파면》과《물건을 팔면》의《팔면》은 소리가 다른데《땅을 판다》의《판다》와《물건을 판다》의《판다》,《땅을 파네》의《파네》와《물건을 파네》의 《파네》는 소리가 같은것을 들수 있다.

언어안에 소리같은말이 좀 있어도 말을 할 때에는 앞뒤의 문맥에 의하여 구별할수 있기때문에 크게 혼란이나 지장이 없다. 그러

나 때때로 《1반이 2반보다 성적이 낫다.》와 《1반이 2반보다 성적이 낮다.》와 같이 소리가 같아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리해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1반이 2반보다 성적이 높다.》,《1반이 2반보다 성적이 못하다.》와 같이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는것이 좋다.

련습

1. 다음단어들의 뜻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국가—나라, 군사—군대—병사, 먹다—잡수시다—들다
2. 다음단어들의 뜻같은말을 아는대로 말하시오.
   길이, 도망가다, 겨우
3. 다음문장에서 뜻반대말을 찾고 그것이 어떤 표현적효과를 낳게 했는가를 설명하시오.
   한마디로 선만 있고 악이 없는 사회, 복만 있고 화가 없는 나라가 여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복 습

1. 다음단어들이 나타내는 뜻들을 아는대로 다 들고 그가운데서 본래의 뜻과 갈라진 뜻을 말하시오.
   심장, 꽃봉오리, 주저앉다
2. 다음문장들에서 단어 《새까맣다》가 각각 어떤 뜻으로 쓰이였는가를 설명하시오.
   ○ 나는 영수의 새까만 눈동자를 마주보았다.
   ○ 그는 새까만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 적들이 고지우로 새까맣게 기여올라왔다.
   ○ 마라손선수인 영철이는 다른 선수들을 새까맣게 떨구어놓았다.
3. 말뿌리 《인민》과 《매우 큰》의 뜻을 나타내는 앞붙이 《왕》이 들어있는 단어를 10개이상씩 찾으시오.
4. 다음단어들을 형태부로 가르시오.
   맞춤법, 헛손질, 휘감기다

5. 다음단어들이 뜻같은말인가 아닌가를 밝히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 보총—권총—기관총—박격포—대포

○ 땅—뭍—륙지—토지

○ 용솟음치다—솟구치다

6. 다음단어들이 뜻반대말인가 아닌가를 밝히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 먹다—못 먹다, 자다—안 자다

○ 뜨다—지다—저물다

7. 다음의 말소리로 발음되는 소리같은말들을 아는대로 말하시오.

○ 말—

○ 배—

○ 차다—

5.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우리 말 단어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고유어란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이 써내려온 단어를 말한다.

례를 들어 단어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바다》, 《붉다》, 《곱다》와 같은것들은 우리 조선사람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만들어 써내려온 순수한 조선말단어인 고유어이다.

한자어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례를 들어 《전쟁》, 《평화》, 《학습장》, 《만년필》, 《백전백승》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 나라에서 한자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그 한자로 만들어진 한자어이다.

외래어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단어를 말한다.

례를 들어 《뜨락또르》, 《텔레비죤》, 《잉크》, 《뻐스》, 《스케트》와 같은 단어들은 조선사람들이 만들어 쓰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고유한 조선말이다.》

우리 말에는 고유어밖에도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지만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고유어이다.

고유어가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기본을 이룬다는것은 인민들

의 언어생활에서 늘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대부분 고유어라는데서 나타난다.

몇가지 례를 들어보자.

《머리》, 《봄》, 《가슴》, 《배》, 《눈》, 《코》, 《입》, 《귀》와 같이 몸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언니》, 《오빠》, 《아저씨》와 같이 가족, 친척을 나타내는 단어들, 《마치》, 《낫》, 《호미》, 《도끼》, 《칼》, 《톱》, 《삽》과 같이 작업도구를 나타내는 단어들, 《하늘》, 《땅》, 《바다》, 《해》, 《달》, 《별》, 《비》, 《바람》, 《구름》, 《안개》와 같이 자연계에 있는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 《나무》, 《풀》, 《벼》, 《보리》, 《콩》, 《도라지》, 《할미꽃》, 《밤》, 《도토리》, 《배》, 《복숭아》, 《소》, 《개》, 《닭》, 《범》, 《곰》, 《노루》와 같이 우리 생활에 가까운 동식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집》, 《부엌》, 《마당》, 《쌀》, 《밥》, 《국》, 《지짐》, 《그릇》, 《이불》, 《옷》과 같이 살림과 관련된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대체로는 다 고유어이다. 이밖에도 《오다》, 《가다》, 《먹다》, 《보다》와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 《높다》, 《낮다》, 《곱다》, 《밉다》, 《붉다》, 《희다》와 같이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우리의 생활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다 고유어이다.

고유어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자어나 외래어보다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한자어는 한자로 만들어졌기때문에《시기상조》나 《풍찬로숙》과 같은것들은 한자로 어떻게 쓴다는것을 모르면 그 뜻을 알기 힘들다.

또한 외래어도《텔레비죤》이나《알루미니움》과 같은것들은 말소리가 까다롭고 어렵다.

그러나 고유어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만들어 써내려온 순수한 조선적인 단어이므로 알기 쉽고 친근하다. 그러므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될수록 고유어를 잘 살려써야 하며 한자어나 외래어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속옷—내의》, 《남새—채소》, 《손기척—노크》와 같이 뜻이 꼭같은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가 쌍을 짓고있을 때에는 고유어를 쓰고 한자어와 외래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

련습

1. 다음문장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를 찾으시오.
   ○ 철국은 조국을 위한 길에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참다운 혁명가가 되리라고 굳게 마음다졌다.
   ○ 옥별이는 샤쯔소매를 살짝 걷어올리고 탁구를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순이가 사진기의 샤타를 찰칵 눌렀다.
2.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고유어가 기본으로 되는 까닭을 말하시오.

6. 문화어어휘와 사투리어휘

《개구리》와 《멱자구》를 비교해보면 이 두 단어는 뜻이 꼭같다. 그러나 《개구리》는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표준으로 삼고 쓰고있는 단어이며 《멱자구》는 몇몇 지방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잘못 쓰고있는 단어이다.

《개구리》처럼 온 나라 인민이 다 표준으로 삼고 쓰는 본보기 조선말단어를 문화어어휘라고 부른다. 지금 우리 나라의 신문이나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방송에서 쓰고있는 말은 모두 문화어어휘이다.

《멱자구》처럼 몇몇 지방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쓰이고있지만 쓰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놓은 단어를 사투리어휘라고 한다.

문화어어휘는 우리 말 단어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것들만을 선택한것이며 또 인민들의 마음에 맞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진것이기때문에 문화성이 높다. 그러나 사투리어휘는 가꾸어지고 다듬어지지 못한것이기때문에 거칠고 문화성이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져있다.

그러므로 사투리어휘를 쓰면 뜻이 통하지 않아 지장을 받을뿐아니라 그 사람자체의 문화성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문화어어휘를 써야 하며 사투리어휘는 쓰지 말아야 한다.

문화어어휘를 쓰고 사투리어휘를 쓰지 않기 위하여서는 사투리어휘에 어떤것이 있는가를 알아두어야 한다.

사투리어휘에는 첫째로, 말소리가 문화어어휘와 전혀 다른것이 있다.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지방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개구리》를 《먹자구》라고 하고 《호주머니》를 《개와》 또는 《옆착》이라고 하며 평안북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저녁때》를 《아진》이라고 하는것 그리고 함경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겨드랑이》를 《자대기》라고 하고 《졸리다》를 《자부럽다》고 하는 것 등이 그 례이다.

사투리어휘에는 둘째로, 말소리는 문화어어휘와 같지만 뜻을 달리 쓰는것이 있다.

《반찬》이라는 단어는 문화어에도 있고 사투리에도 있다. 그런데 문화어에서는 《반찬》을 《밥에 곁들여 먹는 음식》의 뜻으로만 쓰지만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물고기》의 뜻으로 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말을《반찬 잡으러 간다.》,《반찬을 많이 잡았다.》고 한다. 또한 《눅다》와 같은 뜻으로 쓰는 《싸다》를 평안북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문화어에서와는 반대로《비싸다》의 뜻으로 쓰면서 《값이 비싸다.》는 말을 《값이 싸다.》고 하는것 등이 그러한 례이다.

사투리어휘에는 셋째로, 말소리의 일부가 문화어어휘와 다른것이 있다.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기름》을 《지름》이라고 하며 평안북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이발》을《니빨》, 《이마》를 《니마》,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개》를 《가이》, 《뱀》을 《뱜》이라고 하는것 등이 그러한 례이다.

련습

1. 자기가 사는 고장에는 어떤 사투리어휘가 있는가를 찾고 왜 사투리어휘를 쓰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2. 다음문장들에서 사투리어휘를 찾고 문화어어휘로 고치시오.
   - ○ 어머니는 부엌에서 남비에 지름을 두고 말린 새비를 볶았다.
   - ○ 영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집앞에 이르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정가이가 반갑다고 껑충껑충 뛰여올랐다. 영철이는 얼른 개와에서 과자를 꺼내여 가이에게 주었다.

복 습

1. 다음문장들에 쓰인 매 단어들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갈라놓으시오.
   - ○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것이 없다.
   - ○ 비록 몸이 찢겨 가루가 될지언정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
   - ○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혁명가가 투쟁을 멈출수 있겠는가.
   - ○ 뜨락또르가 들판에서 퉁퉁거리며 논밭을 갈고있다.
2. 문화어어휘와 소리가 통채로 다른 사투리어휘, 소리가 일부 차이나는 사투리어휘, 소리는 같으나 뜻을 달리 쓰는 사투리어휘를 각각 3개씩 말하시오.
3. 다음문장들에 쓰인 밑줄을 친 한자어와 외래어를 뜻이 같은 고유어로 바꾸시오.
   - ○ 경사지를 개간하여 새땅을 얻어냈다.
   - ○ 우리 인민은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을 벌렸다.
   - ○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드디여 돌파구가 열리였다.
   - ○ 우리 일제히 착수하여 오늘과제를 해냅시다.
   - ○ 벤또에는 뎀뿌라랑 맛있는 식찬이 가득 들어있었다.

7. 모음과 자음

우리 말에는 다음과 같은 40개의 말소리가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

이가운데서 《ㅏ, ㅑ, ㅓ, ㅕ》와 같은 말소리들은 그것 혼자만으로도 발음할수 있고 길게 《아—》하고 소리낼수 있지만 《ㄱ, ㄴ, ㄷ, ㄹ》과 같은것들은 그것 혼자만으로는 발음할수 없고 반드시 《그, 느, 드, 르》와 같이 《ㅡ》와 합해야만 발음할수 있으며 길게 소리낼수도 없다. 《그》를 길게 발음하면 첫 순간에만 《ㄱ》

소리가 나고 후에는 《ㅡ》소리만 남는다.

《ㅏ, ㅑ, ㅓ, ㅕ》와 같이 혼자서도 발음할수 있고 길게 소리낼수 있는 말소리들을 모음이라고 부르고 《ㄱ, ㄴ, ㄷ, ㄹ》과 같이 혼자만으로는 발음할수 없고 반드시 모음과 합해야만 발음할수 있으며 길게 소리낼수 없고 순간적으로만 발음되는 말소리들을 자음이라고 부른다.

모음은 길게 발음할수 있지만 자음을 길게 발음할수 없는것은 모음은 발음할 때 막히거나 좁혀지는 장애가 없는 반면에 자음은 발음할 때 막히거나 좁혀지는 장애가 있기때문이다. 모음 《ㅑ》를 발음할 때에는 입안이 열려진 상태에서 날숨이 자유롭게 나가지만 자음 《ㅂ》을 발음할 때에는 두입술이 막혔던것을 날숨이 나가면서 터친다. 그러므로 모음은 날숨이 장애가 없이 나갈 때 이루어지는 소리이며 자음은 날숨이 장애를 거쳐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소리라고도 한다.

우리 말에는 모음이 21개, 자음이 19개 있다.

모음가운데서 《ㅏ, ㅓ, ㅗ, ㅜ》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안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 모음들이 다른 어떤 말소리와 합해져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 하나만으로 이루어졌기때문이다. 그러나 《ㅑ, ㅕ, ㅛ, ㅠ》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안의 모양이 달라진다. 《ㅑ》를 발음해보면 입안의 모양이 첫 순간에는 《ㅣ》를 발음할 때와 같아지고 마지막에는《ㅏ》를 발음할 때와 같아진다. 그것은《ㅑ》가 짧게 발음되는《ㅣ》와 그보다 좀 길게 발음되는《ㅏ》 두개의 말소리가 겹쳐져서 이루어졌기때문이다.

모음가운데서《ㅏ, ㅓ, ㅗ, ㅜ》와 같이 그것 하나만으로 이루어지고 발음하는 도중 입안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홑모음이라고 부르며 《ㅑ, ㅕ, ㅛ, ㅠ》와 같이 두개의 말소리가 겹쳐져서 이루어지고 발음하는 도중에 입안의 모양이 달라지는 모음을 겹모음이라고 부른다.

우리 말에는 홑모음이 10개, 겹모음이 11개 있다.

홑모음 :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겹모음 : ㅑ, ㅕ, ㅛ, ㅠ, ㅒ, ㅖ, ㅢ, ㅘ, ㅝ, ㅙ, ㅞ

자음가운데서 《ㄱ, ㄷ, ㅂ, ㅅ, ㅈ, ㅎ》은 소리가 순하게 들리기때문에 순한소리라고 부르고《ㅋ, ㅌ, ㅍ, ㅊ》은 소리가 거세게 들리기때문에 거센소리라고 부르며《ㄲ, ㄸ, ㅃ, ㅆ, ㅉ》은 소

리가 되게 들리기때문에 된소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ㄴ, ㄹ, ㅁ, ㅇ》은 소리가 맑고 울림이 좋기때문에 울림소리라고 부른다. 울림소리가운데서 《ㄴ, ㅁ, ㅇ》 3개의 말소리는 발음할 때 날숨이 코안으로 나오면서 울려주기때문에 따로 코안소리라고 부른다.

련습

1.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쓰고 학급동무들의 이름을 자모순서로 적으시오.
2. 《유격대행진곡》 1절의 가사를 쓰고 모음과 자음, 홑모음과 겹모음, 순한소리와 거센소리, 된소리, 울림소리, 코안소리를 각각 밝히시오.
3. 《ㅑ, ㅕ, ㅛ, ㅠ, ㅒ, ㅖ》와 《ㅘ, ㅝ, ㅙ, ㅞ》를 천천히 발음해보면서 이 겹모음들이 각각 무엇과 무엇이 합해져서 이루어졌는가를 말하시오.

8. 단어의 소리마루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단어의 소리마루란 무엇인가를 알자면 먼저 소리마디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그러면 소리마디란 무엇인가.

다음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어들을 또박또박 읽어보자.

◯ 조선은 하나이다.

《조/서/는 하/나/이/다.》라고 하나하나의 마디를 이루면서 소리가 난다.

이와 같이 단어를 발음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하나의 마디를 소리마디라고 한다.

결국 소리마디란 글자 하나에 해당하는 발음단위라고도 할수 있다.

우리 말 단어에는 하나의 소리마디로 된것도 있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소리마디로 된것도 있다.

◯ 당, 강, 산— 하나의 소리마디로 된것

◯ 영웅, 하늘, 바다— 두개의 소리마디로 된것

◯ 어머니, 3대혁명, 소년단조직— 세개 또는 그 이상의 소리마디로 된것

소리마디에서 받침이 있는 소리마디를 닫긴소리마디라고 하고 받침이 없는 소리마디를 열린소리마디라고 한다.

◯ 봄(닫긴소리마디), 비(열린소리마디), 진달래(닫긴소리마디, 닫긴소리마디, 열린소리마디)

그러면 단어의 소리마루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것을 이루고있는 하나하나의 소리마디를 똑같이 높게, 길게, 세게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마디는 높게 발음하고 어떤 소리마디는 길게 발음하는가 하면 또 어떤 소리마디는 세게 발음한다.

다음단어들은 어디가 높게 발음되고 어디가 길게 발음되며 또 어디가 세게 발음되는가를 알아보자.

◯ 혁명, 멀리, 철저히

《혁명》에서는 《혁》이 높게 발음되고 《멀리》에서는 《멀》이 길게 발음되며 《철저히》에서는 《철》이 세게 발음된다.

이와 같이 단어를 발음할 때 어느 한 소리마디를 특별히 높게 혹은 길게 또는 세게 발음하는것을 단어의 소리마루라고 한다.

단어의 소리마루에는 높이마루, 길이마루, 세기마루가 있다.

단어의 소리마루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높이마루《 ˊ 》, 길이마루《—》, 세기마루《 • 》

단어에서 이러한 소리마루가 온 소리마디는 다른 소리마디보다 특별히 높거나 길게 또는 세게 발음한다.

그러면 높이마루, 길이마루, 세기마루란 무엇인가.

— 높이마루란 단어안에서 어느 한 소리마디를 특별히 높이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 조́국, 어머́니, 자력갱́생

단어안에서 높이마루는 다음과 같은 자리에 온다.

두개의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서는 보통 첫 소리마디에 오며 특별한 경우에 두번째 소리마디에도 온다.

◯ 학́생, 강́산, 명́령, 옥́이, 철́이, 세́상, 전́진

◯ 조선́, 바다́, 얼굴́, 영순́, 은별́

세개의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서는 가운데소리마디에 온다.

◯ 압록́강, 붉은́기, 천리́마, 소년́단, 아버́지

네개 혹은 그 이상의 소리마디로 된 단어에서는 대체로 뒤에서 두번째 소리마디에 온다.

○ 백발백중, 항일유격대, 사회주의건설

— 길이마루란 어느 한 소리마디를 특별히 길게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 모든, 부지런히, 아장아장

우리 말에서 길이마루는 모든 단어에 다 오지 않고 움직임이나 성질, 모양을 꾸며주는 단어들에 많이 온다.

○ 환히, 천천히, 몹시, 살그머니, 산들산들

— 세기마루란 단어안에서 어느 한 소리마디를 다른 소리마디보다 세게 발음하는것을 말한다.

○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우의 문장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말에서 세기마루는 언제나 단어의 첫 소리마디에 온다.

그러므로 첫 소리마디는 다른 소리마디보다 약간 세게 발음하여야 한다.

단어의 소리마루를 정확히 지키는것은 단어발음에서 높낮이와 길이, 세기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말의 문화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단어의 소리마루를 정확히 지킴으로써 부드럽고 유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전투적인 우리 말 발음의 우수성을 더욱 살려나가야 한다.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높이마루를 찾아 표시하고 그에 맞게 발음하시오.
   속도전, 형님, 누나, 언니, 오빠, 사회주의, 철수, 향단
2. 다음단어들에서 길이마루를 찾아 표시하고 그에 맞게 발음하시오.
   다같이, 아득하다, 널리, 찰랑찰랑, 불그스름하다, 힘껏, 두둥실, 씽씽
3. 다음문장들에서 세기마루를 찾고 그에 맞게 읽으시오.
   ○ 나를 따라 앞으로！
   ○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9. 단어의 발음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말은 발음이 풍부하여 그 어떤 힘들고 까다로운 발음도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하다. 그것은 우리 말에 모음과 자음이 풍부하고 또 그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어떤 소리든지 마음대로 낼수 있기때문이다.

풍부한 우리 말 발음을 잘 살리자면 단어의 발음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단어의 발음법이란 무엇인가.

다음단어들을 발음하여보자.

○ 함박눈, 학교

《함박눈》은 〔함방눈〕으로 발음되고 《학교》는 〔학꾜〕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을 발음할 때에는 누구나 〔함방눈〕, 〔학꾜〕라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어를 발음할 때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단어의 발음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말 단어의 발음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① 이어내기

○ 월요일〔워료일〕, 절약〔저략〕, 축원하다〔추권하다〕, 번영하다〔버녕하다〕, 붉은기〔불근기〕

② 소리닮기

○ 천리마〔철리마〕, 십리〔심리〕, 근로자〔글로자〕, 독립〔동립〕, 부엌문〔부엉문〕, 믿는다〔민는다〕

③ 《지, 치》로 되기

자음 《ㄷ, ㅌ》이 모음《ㅣ》와 어울려 《지, 치》로 되는것을 《지, 치》로 되기라고 한다.

○ 해돋이〔해도지〕, 가을걷이〔가을거지〕, 미닫이〔미다지〕, 맏이〔마지〕

○ 쏜살같이〔쏜살가치〕, 낱낱이〔난나치〕, 샅샅이〔삳싸치〕,

붙이다〔부치다〕

④ 소리끼우기

○ 해빛〔핻빛—핻삗〕, 배길〔밷길—밷낄〕, 기발〔긷발—긷빨〕

○ 앞이마〔앞니마—암니마〕, 덧이〔덧니—던니〕, 못 잊다〔못 닏다—몬 니따〕

⑤ 소리빠지기

○ 놓아〔노아〕, 놓으니〔노으니〕, 놓아서〔노아서〕

○ 값〔갑〕, 없다〔업따〕, 돐〔돌〕, 기슭〔기슥〕, 읊다〔읍따〕, 닮다〔담따〕, 앉다〔안따〕

⑥ 된소리되기

○ 혁신〔혁씬〕, 봄바람〔봄빠람〕, 우등불〔우등뿔〕, 봄비〔봄삐〕, 밭갈이〔받까리〕, 물고기〔물꼬기〕, 돕다〔돕따〕

⑦ 거센소리되기

○ 행복하다〔행보카다〕, 맏형〔마텽〕, 입학〔이팍〕, 어엿하다〔어여타다〕, 맞히다〔마치다〕

련습

1.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고 발음법별로 묶으시오.
   학생, 별나라, 하얗다, 해발, 해돋이, 목요일, 찬란하다, 업히다, 여든돐, 한결같이, 물고기, 옛날, 혁명, 닭, 젖히다, 불요불굴, 높다, 밭머리, 홑이불, 굳이, 축하하다
2. 우리 말 단어의 발음법에 대하여 실례를 3개씩 들면서 설명하시오.

복 습

1. 우리 말 모음과 자음을 차례대로 쓰고 그 이름을 말하시오.
2. 다음단어들에서 겹모음을 찾고 왜 그것이 겹모음으로 되는가를 말하시오.
   웨치다, 외국인, 애국자, 위하여, 날아예다, 원하다, 사회주의, 혁명, 읊다, 옳다, 왜놈
3. 다음단어들을 우리 글자의 차례대로 쓰시오.
   ○ 주체, 사회주의, 씌우다, 천리마, 봏다, 소년단, 노래, 학교, 빨갛다, 산천, 땅크

○ 개선문, 조국, 해방, 희망, 자랑, 높다, 기발, 조직, 파랗다, 기쁘다, 푸르다, 희다

4. 다음문장에서 단어의 소리마루를 찾아 표시하고 그에 맞게 정확히 발음하시오.

모든 소년단원들은 《학습도 생활도 항일아동단식으로!》라는 구호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5. 다음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보고 어떤 소리되기의 단어인가를 말하시오.

살같이, 목요일, 불길, 외과, 새하얗다, 풀잎, 맏누이, 기슭

10. 품사란 무엇이며 품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1) 품사란 무엇인가

《학교》, 《아름답다》에는 《학교가, 학교를, 학교에서》,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처럼 그뒤에 《가, 를, 에서》, 《다, 고, 지》와 같은 토가 붙을수 있지만 《어느》, 《매우》에는 아무 토도 붙을수 없다.

한편 《학교》는 그뒤에 붙는 《가, 를, 에서》, 《다, 고, 지》와 같은 토를 떼여버리고 자기 혼자서도 쓰일수 있지만 《아름답다》는 《다, 고, 지》와 같은 토를 떼여버리고 《아름답》만으로는 쓰일수 없다.

다른 한편 《어느》는 《어느 학교》처럼 《학교》와 같은 단어들과만 결합하고 《아름답다》와는 결합하지 않으며 반대로 《매우》는 《매우 아름답다》처럼 《아름답다》와만 결합하고 《학교》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한편 《학교》는 《무엇?》,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고 《어떠한가?》라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며 반대로 《아름답다》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하고 《무엇?》,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단어들은 그뒤에 토가 붙는가 붙지 않는가, 토를 떼버리고 혼자서 쓰이는가 쓰이지 못하는가, 어떤 단어와 결합하고

어떤 단어와 결합하지 않는가, 어떤 물음에 대답하면서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한결같지 않다.

품사란 바로 그뒤에 토가 붙는가 붙지 않는가, 토를 떼버리고 혼자서도 쓰일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단어와 결합하고 어떤 단어와 결합하지 않는가, 어떤 물음에 대답하며 어떤 뜻을 나타내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갈라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품사란 단어들을 그 뜻과 문법적특성에 따라 크게 갈라놓은 갈래를 말한다.

우리 말에는 수십만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런 기준에서 여덟가지로 갈라진다.

2) 품사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우리 말 품사에는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가 있다.

(1) 명사란 무엇인가

명사란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 등을 이름지어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단어들가운데는 명사가 제일 많다.《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와 같이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연필, 학습장, 칼》과 같이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나무, 돌, 구름, 바람》과 같이 자연계에 있는것들을 나타내는 단어, 《마음, 사랑, 기쁨, 생각》과 같이 심리를 나타내는 단어,《달리기, 씨름, 축구》와 같이 운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처럼《누구?》,《무엇?》이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단어는 모두 명사이다. 명사에는 우의 단어들과 같이 제 홀로 완전한 뜻을 나타내는 완전명사와 《것, 수, 줄, 뿐, 때문》 등과 같이 제 홀로 완전한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완전명사가 있다.

(2) 수사란 무엇인가

수사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백, 천》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첫째, 둘째, 셋째, 열째, 스물셋째》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모두 수사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인가?》, 《몇번째인가?》 찍어서 나타내지 않고 《여럿, 다수, 소수》, 《나중, 먼저》와 같이 막연한 수량이나 막연한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수사가 아니다.

(3) 대명사란 무엇인가

대명사란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 등을 가리키기만 하는 단어들을 말한다.

대명사에는《나, 너, 그, 우리, 당신, 저, 저희, 자네, 이, 저기, 여기, 거기》와《누구, 무엇, 얼마, 어디, 언제》등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한다.

명사, 수사, 대명사는 토가 붙지만 토없이도 쓰일수 있으면서 사람이나 동식물, 물건 등 대상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이것들을 한데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4) 동사란 무엇인가

동사란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하여 모두 동사인것은 아니다. 《운동, 달리기》는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명사로 된다. 그것은 이 단어들이 움직임을 이름지어 나타내며 《운동이, 운동을…》, 《달리기가, 달리기를…》과 같이 뒤에 붙은 토를 떼버리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쓰일수 있기때문이다.

동사는 단어들가운데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가다, 오다, 뛰다, 걷다, 보다, 자다, 운동하다, 생각하다, 놀라다, 숨기다》 등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어찌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단어들은 모두 동사이다.

(5) 형용사란 무엇인가

형용사란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포동포동》, 《용감성》과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가 아니다.

단어들가운데는 형용사도 대단히 많다.

《붉다, 푸르다, 맑다, 굳다, 크다, 작다, 포동포동하다, 충실

하다, 명랑하다, 용감하다, 향기롭다, 흔하다, 드물다》 등 모양이나 성질을 나타내면서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단어들은 모두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토가 붙을수 있으나 토없이는 쓰일수 없으면서 움직임이나 성질, 모양을 풀이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이것들을 한데 묶어 용언이라고 한다.

(6) 관형사란 무엇인가

관형사란 대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들에는 토가 붙지만 관형사에는 토가 절대로 붙지 않으며 체언과만 결합한다.

관형사는 그 수가 얼마 많지 않다.

《새 학교》의《새》,《온 가족》의《온》,《매 사람》의《매》, 《여느 나라》의 《여느》, 《딴 사람》의 《딴》, 《무슨 냄새》의 《무슨》, 《약 30명》의 《약》, 《단 하루》의 《단》 등 어떤 토도 붙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규정해주는 단어들은 모두 관형사이다.

(7) 부사란 무엇인가

부사란 움직임이나 성질, 모양을 꾸며주는 단어들을 말한다.

부사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그뒤에 토가 붙지 않는것이 기본이지만 간혹《잘도 한다》,《잘은 한다》와 같이《도》,《은》등 한두개의 토가 붙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용언과 결합하는것이 기본이지만《거의 대학졸업생이다》, 《거의 100리길이다》와 같이 체언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부사는 그 수가 명사나 동사, 형용사보다는 적지만 관형사보다는 훨씬 많다.

《멀리, 가까이, 늘, 이미, 아까, 금방, 널리, 도로, 고루, 따로, 자주, 힘껏, 높이, 깊이, 가장, 몹시, 아주, 전혀, 훨씬, 무척, 더욱, 퍽, 좀, 약간, 꽤, 아무리, 오직, 참, 정말, 매끈매끈, 알른알른, 살살, 살짝》등 기본적으로 토가 붙지 않으면서 용언과 결합하는 단어들은 모두 부사이다.

(8) 감동사란 무엇인가

감동사란 사람의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들을 말한다.

《기쁘다》, 《섭섭하다》는 느낌이 어떻다는것을 나타내지만 《야》는 기쁘다든가 섭섭하다든가 하는 느낌을 그대로 말소리로 나타낸다. 그러므로《야》는 경우에 따라 기쁘다는것을 나타낼수도 있고 섭섭하다는것을 나타낼수도 있다.

감동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오, 아, 애개개, 아차, 아이구, 원, 에라, 얼씨구》와 같이 그뒤에 어떤 토도 붙지 않으면서 느낌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들은 모두 감동사이다.

련습

1. 어떤 단어가 무슨 품사인가를 알자면 무엇을 차례로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2. 다음글에서 밑줄을 친 단어들이 각각 무슨 품사인가를 말하시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에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력사에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
몸과 맘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11. 토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구실을 하는가

《목란꽃이 곱게 피였다》에서 《목란꽃이》의 《이》는《목란꽃》을 《피였다》와 련결시켜주고있으며 《곱게》의 《게》는 《곱다》를 《피였다》와 련결시켜주고있다. 그리고 《피였다》의 《였》은 《피》는 행동이 과거에 진행되였다는것을 나타내고있으며 《다》는 문장이 끝났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토란 이와 같이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와 련결시켜

주거나 어떤 사실이 있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문장이 끝났다는것을 나타내거나 그밖의 다른 여러가지 뜻을 나타내는 형태부를 말한다.

다시말하여 단어의 문법적뜻을 나타내는 형태부를 토라고 한다.

단어에서 줄기가 나타내는 뜻과 토가 나타내는 뜻은 성질이 다르다.

줄기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 상태와 같은 구체적이고 뚜렷한것을 나타내지만 토는 무엇과 무엇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다는것만을 나타낸다. 따라서 토가 나타내는 뜻은 줄기의 뜻처럼 뚜렷한 맛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단어만 중요한 구실을 하고 토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다음의 문장들을 비교해보자.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바람이 불어야 비가 온다.
바람이 불므로 비가 온다.

첫째 문장은 바람이 부는것과 비가 오는것이 동시에 진행된다는것을 나타내고있고 둘째 문장은 바람이 부는것이 비가 오기 위한 조건이라는것을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셋째 문장은 바람이 부는것이 비가 오는것의 원인이라는것을 나타내고있다.

다음의 문장들을 또 비교해보자.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가?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겠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올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첫째 문장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것이 현재 진행되고있다고 알려주고있고 둘째 문장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것이 현재 진행되고있는가를 묻고있으며 셋째 문장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것이 이미 과거에 진행되였다고 알려주고있으며 넷째 문장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올것이 예견된다는것을 나타내고있다. 그리고 다섯째 문장은 앞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것이 확실하겠는가 확실치 않겠는가 의문을 품고 물어보고있으며 여섯째 문장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이 확실하며 현재 진행되고있는 사실이라는것을 듣는 사람을 높여서 알려주고있다.

이와 같이 우에서 례로 든 모든 문장들은 단어는 꼭 같은데 토가 달라지면서 그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은 토가 단어와 단어를 련결시켜줄뿐아니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것이 무엇을 알리는 말인가 물어보는 말인가, 과거의 사실인가 미래의 사실인가, 확신성있게 말하는것인가 의문을 품고 말하는것인가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복잡한 뜻들을 다 나타내는 구실을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를 잘 골라야 할뿐아니라 전달하자고 하는 목적에 맞게 토를 다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련습

1. 다음글에서 토를 갈라내고 그것들이 어떤 구실을 하는가를 말하시오.

   싱그러운 꽃향기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향기속으로 기쁨넘친 사람들이 즐겁게 오가고있었습니다.

2. 다음문장들에서 토를 찾고 문장의 뜻이 서로 다른것은 무엇때문인가를 말하시오.

   영호가 우리 집에 온다.
   영호가 우리 집에 왔다.
   영호가 우리 집에 올것이다.
   영호가 우리 집에 올가?
   영호가 우리 집에 옵니다.

12. 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말은 토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치밀하게 발달되였습니다.》

우리 말은 토가 매우 발달되여있다.

때문에 어떤 복잡한 생각이나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다.

토에는 체언에만 붙고 용언에는 붙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용언에만 붙고 체언에는 붙지 않는것들이 있다.

례를 들어 《학교가》의 《가》나 《학교의》의 《의》는 체언에만 붙고 용언에는 직접 붙지 않으며 《가면서》의 《면서》나 《갈수록》의 《ㄹ수록》은 용언에만 붙고 체언에는 직접 붙지 않는다.

《가》나 《의》와 같이 체언에만 붙고 용언에는 직접 붙지 않는 토를 체언토라고 부르며 《면서》나 《ㄹ수록》과 같이 용언에만 붙고 체언에는 직접 붙지 않는 토를 용언토라고 부른다.

체언토에는 격토, 도움토, 복수토가 속하고 용언토에는 맺음토, 이음토, 규정토, 상황토, 존경토, 시간토, 상토가 속한다.

격토는 단어와 단어를 련결시켜주는 토이다.

○ 학교가 훌륭하다.

○ 학교의 영예를 빛내였다.

도움토는 단어의 역할과 뜻을 도와주는 토이다.

○ 영수는 공부도 잘한다.

○ 영수는 공부만 잘한다.

복수토는 둘이상 여럿임을 나타내는 토이다.

○ 학생들의 첫째가는 임무는 학습을 잘하는것이다.

맺음토는 문장을 끝맺어주는 토이다.

○ 우리는 **정일**봉으로 갑니다.

이음토는 단어와 문장을 이어주는 토이다.

○ 강철도 많이 생산하고 석탄도 많이 생산한다.

○ 형님은 일하면서 공장대학에 다닌다.

규정토는 단어를 규정해주는 토이다.

○ 용감한 인민군대형님들이 적들을 몽땅 요정냈다.

○ 항일유격대원들은 기다리던 조국진군의 길에 올랐다.

상황토는 단어를 꾸며주는 토이다.

○ 전투원들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갔다.

존경토는 다른 사람을 존경함을 나타내는 토이다.

○ 어제 밤에 출장갔던 아버지가 오시였다.

시간토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토이다.

○ 나는 장편소설 《은하수》를 읽었다.

○ 리수복영웅처럼 살며 싸우겠다.

상토는 동사에 붙어서 행동과 행동의 임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토이다.

○ 아버지는 옛 전우들에게 색낡은 사진을 보이였다.

바꿈토는 체언을 용언으로, 용언을 체언으로 바꾸어주는 토이다.

체언토들인 격토, 도움토, 복수토는 용언에 직접 붙지 못하지만 용언에 《ㅁ(음)》, 《기》가 붙은 다음에는 붙을수 있다.

○ 도착함과 동시에 전보를 쳤다.

○ 빨리 도착하기가 다행이다.

용언토들인 맺음토, 이음토, 상황토, 규정토, 존경토, 시간토는 체언에 직접 붙지 못하지만 체언에 《이》가 붙은 다음에는 붙을수 있다.

○ 나는 중학교 학생이다.

《ㅁ(음)》,《기》,《이》와 같이 용언이나 체언에 체언토나 용언토가 붙을수 있게 하는 토를 바꿈토라고 한다.

련습

1. 다음글에서 체언토들을 찾으시오.

 잠시후 철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아저씨, 어서 떠나세요. 적비행기는 도망쳤어요.… 우리 몫까지 놈들을 족치고 오세요!》
 소년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있었다.

2. 다음글에서 용언토들을 찾으시오.

 억손이는 인자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보며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다.
 이윽고 그는 날아갈듯 한 마음으로 금순누나와 함께 풀막을

향해 걸었다.

억손이는 우거진 나무가지사이로 별들이 깜빡거리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13. 토를 가려내는 방법

토는 단어의 한 부분이며 단어를 떠나서 혼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단어에서 어느것이 줄기이고 어느것이 토인가 하는것을 어떻게 가려내는가.

단어에서 줄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며 토는 변하는 부분이다.

토가 바뀌거나 떨어지거나 덧붙어도 줄기는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례를 들면《학교가》,《학교를》,《학교의》와 같이 토는《가》,《를》,《의》 등으로 바뀌여도 줄기 《학교》는 언제나 한모양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가 떨어져나가도, 토가 여러개 덧붙어서《학교에서부터였겠습니다》와 같이 되여도《학교》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단어에서 어느것이 줄기이고 어느것이 토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토들을 붙이면서 그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바뀌는 부분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양이 바뀌지 않는 부분은 줄기라고 규정하고 모양이 바뀌는 부분은 토라고 규정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단어들은 줄기가 언제나 한모양으로 고정되여있지 않고 그 끝부분의 말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있다.

례를 들어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다우며, 아름다우니, 아름다운》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름다》까지는 한모양으로 고정되여있지만 그다음의 말소리인 《ㅂ》이 어떤 때에는 《우》로 바뀐다.

이렇게 줄기의 끝부분의 말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변하는 부분은 토라고 규정하면 틀릴수 있다.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다우며, 아름다우니, 아

름다운》에서는 줄기의 끝소리인 《ㅂ》이 《우》로 바뀐것이기때문에《아름답/ 아름다우》까지가 줄기이고 그 다음부분인《다, 고, 지, 며, 니, ㄴ》은 토이다.

이와 같이 줄기의 끝부분의 말소리가 바뀌기때문에 줄기와 토의 계선을 긋기 어려운 때에는 비슷하게 변하는 다른 단어 하나를 들고 대비해보면서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면 토를 쉽게 가려낼수 있다.

례를 들어《희다, 희고, 희지, 희며, 희니, 흰》과《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다우며, 아름다우니, 아름다운》을 대비해 보면《다, 고, 지, 며, 니, ㄴ》이 공통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이것들이 토라는것을 알수 있다.

련습

1. 다음단어들에서 줄기와 토를 가르고 어떻게 갈라냈는가를 말하시오.

   훌륭하다, 검다, 좋다, 작다

2. 다음글에 들어있는 단어들에서 줄기와 토를 가르시오.

   《애, 꿀꿀아! 어디 네가 한 일을 좀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척 붙어버린 입을 다시는 열지 못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낮잠이나 쿨쿨 자다가 남이 벌어들인거나 첩첩 먹으며 살아오던 꿀꿀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그들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복 습

1. 다음문장들에 들어있는 단어들에서 줄기와 토를 가르시오.
   - ○ 못 견디게 사랑스러운 내 고향의 들판은 풀잎에 맺힌 맑은 이슬도, 돌돌 흐르는 수로의 물도 언제나 정답고 살뜰하다.
   - ○ 속보판앞을 지나던 순녀는 문득 《어마나!》 하며 제 이름 석자를 보고 얼굴이 빨갛게 되여 달아났다.
2. 다음문장들에서 토를 가려내고 그것이 어떤 구실을 하고있는가를 설명하시오.
   - ○ 해방전에는 우리 나라 농민들이 물고생을 많이 하였다.
   - ○ 아침해도 찬란히 여기에서 솟아오르고 보람찬 건설의 하루

도 여기에서 시작된다. 창조의 노래속에 날이 밝고 해가 지는 곳, 아, 평양!

3. 다음문장들에 쓰인 토들을 체언토와 용언토로 가르시오.
   ○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미제원쑤놈들이 끝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면 산악같이 일떠서 놈들을 단매에 족쳐버릴것이다.
   ○ 가렬했던 전쟁의 나날 그는 통신분대장으로서 부대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간을 하루와 같이 불사신처럼 싸웠다.
4. 다음단어들에 여러가지 토들을 붙여보면서 줄기의 끝부분의 말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밝히시오.

   싣다, 낫다, 맵다, 하얗다

14. 격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격토에는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가 있다.

주격토는 어떤 사실의 임자로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

주격토에는 《가》, 《이》, 《께서》가 있다.

○ 이 학교가 온 나라에 소문난 학교이다.

○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 할아버님께서 평양에 오셨다.

《가》는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고《이》는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으며 《께서》는 존경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다.

대격토는 움직임이 곧바로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대격토에는 《를》, 《을》이 있다.

○ 공부를 열심히 한다.

○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한다.

《를》은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고《을》은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속격토는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이 속함을 나타낸다.

속격토에는 《의》가 있다.

○ 학교의 영예를 빛내인다.

○ 학생의 첫째가는 임무는 공부를 잘하는것이다.

《의》는 받침으로 끝난 단어나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꼭같이 붙는다.

여격토는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여격토에는 《에》, 《에게》, 《께》가 있다.

○ 학교에 귀중한 책을 보내여왔다.

○ 동생에게 그림책을 주었다.

○ 아버님께 편지를 보내였다.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고 《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그밖의것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으며《께》는 존경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다.

위격토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나타낸다.

위격토에는 《에서》, 《에게서》가 있다.

○ 도서실에서 책을 읽는다.

○ 형님에게서 노래를 배운다.

《에게서》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고 《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그밖의것을 나타내는 단어에 붙는다.

조격토는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쓰이는 대상을 나타낸다.

조격토에는 《로》, 《으로》가 있다.

○ 기계로 밭을 간다.

○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리수복영웅.

《로》는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고 《으로》는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구격토는 함께 놓이는 대상을 나타낸다.

구격토에는 《와》, 《과》가 있다.

○ 학교와 가정, 가정과 학교

《와》는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고《과》는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는다.

호격토는 부름을 나타낸다.

호격토에는 《아》, 《야》, 《여》가 있다.

○ 영남아, 같이 가자.

○ 순희야, 숙제를 다했니?

○ 정다운 동무여, 우리 서로 헤여져도 잊지 말자.

《아》는 받침으로 끝난 단어에 붙고《야》는 받침없이 끝난 단어에 붙으며《여》는 존경이나 정중하고 숭엄한 뜻빛갈을 나타내려고 할 때 쓴다.

련습

1. 다음문장들에서 격토를 찾으시오.
   ○ 영희는 학교로 간다.
   ○ 동생은 유치원에서 돌아와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다.
2.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가 들어간 문장을 각각 한개씩 지으시오.
3.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가 들어간 문장을 각각 한개씩 지으시오.

15. 맺음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맺음토에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 때 쓰는 토와 물어보려고 할 때 쓰는 토, 시키려고 할 때 쓰는 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할 때 쓰는 토가 있다.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에서《ㅂ니다》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 때 쓰는 토이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ㅂ니다(습니다), 답니다, 랍니다, 는걸요(ㄴ걸요), 는데요(ㄴ데요), 던데요, ㄹ게요, 더군요, 더라니까요, 로군요, 로구만요, 군요, 구만요, 누만요, 네, 다네, 라네, 데, ㅂ데(습데), 군, 구려, 구만, 누만, 로군, 로구만, 더군, 더라니, 더라니까, 거던, ㄹ게, ㄹ래, 다구야, 소, 지, 다, 라, 단다, 란다, 더라, 도다, 로다, 리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씁니까?》에서《ㅂ니까》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할 때 쓰는 토이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ㅂ니까(습니까), 답니까, 랍니까, 는가요, ㄴ가요, 던가요, ㄹ

가요, ㄴ지요, 나, 는가, ㄴ가, 던가, ㄹ가, 다지, 라지, 는지, 던지, 냐, 느냐, 더냐, ㄹ소냐, 랴, 니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쓰십시오.》에서 《ㅂ시오》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쓰는 토이다.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ㅂ시오, 세요, 라요, 라구요, 시오, 게, 라구, 구려, 라(아라, 어라, 여라), 려무나, 렴, 려마

이가운데서 《세요》는 주로 녀자들이 많이 쓰는 토이다.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씁시다.》에서 《ㅂ시다》는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할 때 쓰는 토이다.

무엇을 자기와 함께 하자고 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ㅂ시다(읍시다), 자요, 자구요, 세, ㅂ세, 자구, 자꾸나

맺음토가운데서 《책을 보오.》에서 《보오》의 《오》, 《책을 보아》에서 《보아》의 《아》와 같은 토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 때나 물어보려고 할 때,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에 두루 다 쓰기때문에 토 그자체를 놓고는 알리려고 할 때 쓰는 토라든가 물으려고 할 때 쓰는 토, 시키려고 할 때 쓰는 토라고 찍어서 말할수 없다. 다만 억양으로 구별할뿐이다.

○ 책을 보오↘. (알림)

○ 책을 보오⤻? (물음)

○ 책을 보오→. (시킴)

○ 책을 보아↘. (알림)

○ 책을 보아⤻? (물음)

○ 책을 보아→. (시킴)

맺음토에는 또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최대로 높여서 대할 때 쓰는 토와 조금 높여서 대할 때 쓰는 토, 듣는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면서 공적으로 대할 때 쓰는 토, 듣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어서 대할 때 쓰는 토가 있다.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씁니다.》에서 《ㅂ니다》는 듣는 사람을 최대로 높여서 말할 때 쓰는 토이다.

듣는 사람을 최대로 높여서 말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ㅂ니다(습니다), 답니다, 랍니다,

ㅂ니까(습니까), 답니까, 리까, 랍니까, ㅂ시다, ㅂ시오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요.》에서 《요》는 듣는 사람을 조금 높여서 말할 때 쓰는 토이다.

듣는 사람을 조금 높여서 말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요(아요, 어요, 여요), 나요, 라요, 자요, 세요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오.》에서《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면서 공적으로 대하여 말할 때 쓰는 토이다.

듣는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면서 공적으로 대하여 말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오(소), 다오, 요, 라오, ㄴ가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네.》에서《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면서 친근하게 대하여 말할 때 쓰는 토이다.

듣는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면서 친근하게 대하여 말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네, 나, 게, 세, 다네, 데, ㄴ데, 라네, 구려, ㅂ데(습데), 다구야, 구만, 로군, 다지, 는지, 던가, ㄹ가

《인민군대형님들에게 편지를 보낸다.》에서 《ㄴ다》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어서 말할 때 쓰는 토이다.

듣는 사람을 자기보다 낮추어서 말할 때 쓰는 맺음토로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다.

다, 느냐, 아라(어라, 여라), 자, 단다, 구나, 더구나, 더라, 누나, 노라, ㄹ라, 마, 란다, 로다, 로구나, 더냐, ㄹ소냐, 냐, 자꾸나, 려무나, 렴

련습

1. 무엇을 알리려고 할 때 쓰이는 토와 물어보려고 할 때 쓰이는 토를 2개씩 말하고 문장을 지으시오.

2. 무엇을 시키려고 할 때 쓰이는 토와 무엇을 함께 하자고 할 때 쓰이는 토를 2개씩 말하고 문장을 지으시오.
3. 듣는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서 말할 때 쓰는 맺음토를 넣어 문장을 지으시오.
4. 다음문장들에서 밑줄을 친 토들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 말할 때 쓰는 토인가를 밝히시오.

○ 이것은 만사람이 본받아야 할 행동이요.

○ 언니, 나 그럼 가요.

○ 영철이가 옵니다.

○ 어서 들어오십시오.

○ 어서 들어오시라요.

16. 이음토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이음토에는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것과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것의 두가지가 있다.

①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이음토

○ 그는 평소에 착하고 말이 없었다.

여기에서 《고》는 《착하다》는것과 《말이 없었다》는것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있다.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이음토는 다시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 두 내용이 동시에 나란히 존재한다는것을 나타내는 이음토: 고, 며, 면서, ㄹ뿐더러, 거니와, 려니와

○ 《유격대행진곡》을 씩씩하게 부르면서 행진한다.

— 두 내용이 서로 맞선다는것을 나타내는 이음토: 지만, 나(으나), 아도, 건만, 련만, ㄴ데(는데), 던데, 되, ㄴ바(는바)

○ 키는 작지만 여물었다.

— 두가지이상의것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것을 나타내는 이음토: 거나, 건, 든, 든지, 든가, 거나

○ 래일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할것이다.

②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이음토

○ 적들의 책동이 심해지<u>므로</u>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므로》는 《적들의 책동이 심해지》는것이 《경각성을 높여야》 할 원인이라는것을 나타내면서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고있다.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이음토는 다시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 원인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므로, 니, 니까, 기에, 길래, 더니, 느라니, ㄴ즉

○ 래일은 강한 바람이 불것이 예견되<u>니</u>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면, 거든, 느라면, 더라면, 자면, 아야(어야, 여야), 더라도, ㄹ지라도, ㄴ들, 던들

○ 미제원쑤놈들이 덤벼들<u>면</u>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릴것이다.

—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다가, 다, 자, 고서

○ 그는 토론을 하<u>다가</u> 잠시 군중을 휘둘러보았다.

— 수단, 방식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아(어, 여), 아서(어서, 여서)

○ 할아버님은 살<u>아서</u> 통일되는 날을 꼭 보겠다 하시였다.

— 목적, 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자고, 려고, 려, 고저, 느라고, 러

○ 하<u>자고</u>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 《무엇하<u>러</u> 가니?》

《공부하<u>러</u> 간다.》

—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이음토: 지

○ 그는 적들에게 체포되였어도 혁명적지조를 굽히<u>지</u> 않았다.

련습

1.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이음토를 3개 말하고 문장을 지으시오.
2. 앞의 내용을 뒤의 내용에 매이도록 이어주는 이음토를 3개 말하고 문장을 지으시오.

복　습

1. 다음문장들에서 격토를 찾고 그것이 무슨 격토인가를 말하시오.

   ○ 휘영청 밝은 달이 솟아올라 보배네 집을 굽어보며 뒤뜰안의 대추나무를 밝게밝게 비쳐주고있었습니다.

   ○ 아기야 어서 걸어라
   꽃밭으로 걸음마 금잔디로 걸음마
   방긋방긋 웃음안고 아빠와 엄마에게 어서 오려마
   용타용타 어서어서 큰 걸음 떼여라

2. 다음글에서 맺음토를 찾고 그것이 알림의 맺음토인가, 물음의 맺음토인가, 시킴의 맺음토인가, 추김의 맺음토인가를 말하시오.

   ○ 《목달개로만 생각지 마세요. 이것은 초소의 형님, 오빠들에게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진정이 넘치는 이 말은 군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겠다는 결의이며 맹세이기도 했다.

   ○ 《엄마는 잔소리 없이는 못 사는가봐.》
   꼬마사슴은 엄마가 하는 말을 모두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신발은 왜 자꾸 꺾어신느냐?》
   《무슨 장난이 그리 심하니?》
   《익지도 않은 돌배를 왜 땄니?》
   마을에서는 모두들 꼬마사슴을 귀여워했는데 엄마는 귀여워하기는커녕 자꾸 꾸짖기만 했습니다.

3. 다음글에서 맺음토를 찾고 그것이 듣는 사람을 최대로 높이는 토인가, 조금 높이는 토인가, 자기와 비슷한 급으로 여기는 토인가, 낮추는 토인가를 말하시오.

   야웅이는 한줄에 묶은 놈들을 줄레줄레 끌어다 대추나무밑둥에 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절구통우에 뛰여올라 생글생글 웃으며 《기다리게 해서 안됐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돼긴 뭐가 안돼, 참 네가 큰일을 했다. 저 쥐무리들을 잡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봐라. 그러면 이 집 낟알이 한알도 남아있지 않을거다. 그러니 너는 우리들이 못하는 큰일을 하고 있는셈이야.》

《그 말이 옳네. 몸은 비록 작지만 아주 큰일을 하고있지. 그러기에 주인은 야웅이가 하는 일이 고마와서 자기네가 사는 방에 함께 데리고 살지 않나.》

황소와 말이 칭찬해주는 바람에 야웅이는 절구통우에 올라와 있는것이 어색해졌습니다.

17. 문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어들을 리용하여 하나하나의 끝맺음이 있는 생각을 나타내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

○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여기서《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와《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는 각각 하나의 끝맺음이 있는 생각을 나타낸것들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끝맺음이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나 글의 제일 작은 토막들을 문장이라고 한다.

○《영수, 너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 부르셔.》
《왜?》
《몰라. 빨리 가봐.》

여기서는《왜?》,《몰라.》가 비록 한개의 단어로 되여있지만 이것들은《선생님이 왜 나를 부르시니?》,《선생님이 왜 너를 부르시는지 나도 몰라.》와 같은 끝맺음이 있는 생각을 충분히 나타내고있기때문에 다 각각 하나의 문장이다.

문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있어야 하는가.

① 문장이 되려면 우선 끝맺음이 있는 하나의 가장 작은 생각을 담고있어야 한다.

한편의 글이나 그 글을 이루고있는 장, 절, 단락, 문장들도 다 생각을 담고있는 토막들이다. 그러나 이가운데서 생각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토막은 오직 문장뿐이다. 문장을 더 작게 가를수는 있지

만 그렇게 되면 하나의 생각을 나타내는것으로 되지 못하고 그저 고립적인 뜻을 나타내는 단어나 토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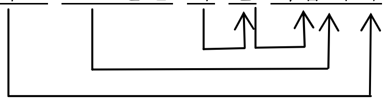
② 문장이 되려면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단어들을 몇개 모아놓는다고 하여 문장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 배우다, 더, 조선말, 잘, 우리

이렇게 고립적으로 벌려놓은 단어들만으로는 아직 무슨 생각을 나타내는것인지 알수 없다. 오직 단어들이 문법적으로 서로 맞물리면서 다음과 같이 련결될 때라야 문장으로 된다.

우리는 조선말을 더 잘 배웁시다.



그러면 무엇이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맞물리도록 해주는가.

첫째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것은 토이다.

우의 문장에서는 토에 의하여 단어들이 다음과 같이 문법적으로 맞물리였다.

우리는—배웁시다(누가—어찌하는가)

조선말을—배웁시다(무엇을—어찌하는가)

토는 행동, 상태가 있은 시간, 말하는 사람이 차리는 례절, 이야기하는 목적 같은것도 나타낸다. 그러므로 토를 잘못 쓰면 말하려는 내용이 달라지거나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둘째로, 중요한 구실을 하는것은 억양이다.

○ 우리 조선말을// 더 잘 배웁시다.

○ 우리// 조선말을 더 잘 배웁시다.

앞문장에서처럼 《우리》와 《조선말을》을 이어서 발음하면 《우리》가 《조선말을》과 맞물리지만 뒤문장에서처럼 《우리》와 《조선말을》을 끊어서 발음하면 《우리》가 《배웁시다》와 맞물린다.

○ 철수는 최우등을 해요.

○ 철수는 최우등을 해요?

앞문장에서처럼 끝부분을 내림억양으로 발음하면 알림문이 되고 뒤문장에서처럼 끝부분을 올림억양으로 발음하면 물음문이 된다.

셋째로, 중요한 구실을 하는것은 단어들의 차례이다.

단어도 같고 토도 같지만 단어가 놓이는 차례가 달라지면 문장

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철호 도서관에서 영수 보았답니다.

○ 영수 도서관에서 철호 보았답니다.

앞문장에서처럼 《철호》가 앞에 놓이고 《영수》가 뒤에 놓이면 《철호가 영수를 보았다》는 뜻이 되고 뒤문장에서처럼《영수》가 앞에 놓이고 《철호》가 뒤에 놓이면 《영수가 철호를 보았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는 토와 억양, 단어들의 차례가 중요한 구실을 하기때문에 문장을 짤 때에는 단어들을 뜻에 맞게 잘 골라써야 할뿐아니라 이 세가지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련습

1. 다음글에서 문장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는 까닭을 말하시오.
   ○ 《금단이 오빠가 영웅이 되였대요.》
   《그래?! 어디서 들었니?》
   《이제 방금 방송에서 그랬대요.》
   ○ 저기 도망간다, 미국놈이, 잡아라, 어서.
   ○ 작업반의 휴식터, 오른쪽에 서있는 버드나무 두그루, 그옆에 세워져있는 아담한 속보판.
2. 다음단어들에 토를 바꾸어 붙이고 억양을 변화시켜 발음해가면서 한개의 단어로 된 여러가지 문장을 만드시오.
   ○ 좋다
   ○ 용감하다

18. 맞춤법과 그 기본원칙

1) 맞춤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꼭같은 모양으로 글을 적어야 한다.

례를 들어 《밤과 낮》이라고 할 때 《낮》이라고 하면 《나》자에 《ㅈ》받침을 하여 《낮》이라고 써야 하며 《기발이 펄펄 휘날린다.》에서 《기발이》라고 하면 누구나 《기발이》라고 같은 모

양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은《낫》이나《낮》,《긷발이》나《긷바리》라고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낟》이나《낱》,《기빨이》나《기빠리》라고 쓴다면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알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미 정해진대로 같은 모양으로 글을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이 말을 글로 적을 때 누구나 꼭같이 지켜야 할 규칙을 맞춤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맞춤법을 잘 알고 언제나 그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쓸 때에도 낡은 맞춤법에 버릇되여 잘못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보급하려면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맞춤법을 잘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맞춤법을 잘 알아야 제 나라 글을 틀리지 않게 적을수 있기때문이다.

제 나라 글을 제대로 쓸줄 모른다면 그것은 커다란 수치이다.

제 나라 글을 알아야 그에 기초하여 국어, 문학뿐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도 잘할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을 무기로 혁명과 건설을 잘해나갈수 있게 된다.

맞춤법을 잘 알아야 하는것은 또한 글에서 혼란을 피하고 글말의 통일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만약《반드시》라고 써야 할것을《반듯이》라고 쓴다거나《걸음》이라고 써야 할것을《거름》이라고 쓰고《앉히다》라고 써야 할것을《안치다》라고 쓴다면 뜻이 전혀 다른 단어로 되여 무슨 말인지 알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맞춤법을 잘 알고 그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맞춤법의 기본원칙

맞춤법에는 기본약속이 있다.

그것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쪼각인 형태부를

언제나 다 제 모양대로 밝혀 적어야 한다는것이다.

례를 들면 《함박눈이》에는 말뿌리들인 《함박》이라는 형태부와 《눈》이라는 형태부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토 《이》가 있다.

그러므로 읽을 때에는 〔함방누니〕로 되지만 쓸 때에는 모든 형태부들을 다 본래모양대로 밝혀 《함박눈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단어안에서 뜻을 가지고있는 가장 작은 쪼각인 형태부들을 언제나 다 제 모양대로 밝혀 적어야 한다는 약속이 맞춤법의 기본원칙이다.

물론 맞춤법에는 《기러기》와 같이 소리나는대로 적는 경우도 있고 《햇솜》에서 《ㅅ》받침을 하는것과 같이 옛날부터 써오던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 글에서는 형태부를 언제나 제 모양대로 적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맞춤법의 이 기본원칙은 우리 말을 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를 한마디로 정해놓은 기본약속이다.

그러므로 맞춤법을 공부하는데서는 언제나 이 기본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맞춤법의 여러가지 규칙들도 이에 기초하여 잘 알수 있다.

련습

1. 다음단어를 례로 들어서 맞춤법이란 무엇인가를 말하시오.
   꽃이
2. 다음단어를 례로 들어서 맞춤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하시오.
   강기슭에
3. 다음단어들에서 형태부를 가르고 왜 발음되는대로 적지 않고 매 형태부들을 다 제 모양대로 밝혀 적었는가를 말하시오.
   금빛해살이, 숲속은, 등잔불아래에, 고향집뜨락이, 뒤동산에

19. 맞춤법의 주요규칙들

우리 말에는 수십만개의 단어가 있다.

우리 말에 이처럼 단어가 많은것만큼 그것을 어떻게 적는가 하는 맞춤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면 맞춤법의 주요규칙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① 합친말적기

우리 말에는 《하늘땅》(하늘＋땅)이나 《아침노을빛》(아침＋노을＋빛)과 같이 여러개의 단어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친말들이 아주 많다.

합친말은 합쳐지기 이전의 본래모양대로 적는다.

○ 꽃봉오리(꽃＋봉오리)→〔꼳뽕오리〕→꽃봉오리
신바람(신＋바람)→〔신빠람〕→신바람
보름달(보름＋달)→〔보름딸〕→보름달

② 줄어든말적기

우리 말에는 《갖고(가지고)》와 같이 줄어든말들도 있다.

줄어든말은 줄어든대로 적는다.

○ 맘(마음), 이담(이다음), 가봐라(가보아라), 용타(용하다), 지붕우엔(지붕우에는)

③ 뒤붙이 《이》가 붙어 만들어진 본딴말적기

우리 말에는 《꿀꿀이》와 같이 뒤붙이 《이》가 붙어 만들어진 본딴말들이 적지 않다.

뒤붙이《이》가 붙어 만들어진 본딴말은《이》를 밝혀 적는다.

○ 짤룩이(개미), 다람이(다람쥐), 갈갈이(게사니), 빡빡이(오리)

그러나 뒤붙이 《이》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는 단어들도 있다.

○ 기러기, 매미, 개구리, 꾀꼬리

④ 소리나 받침이 달라진말적기

우리 말에는《안팎(안＋밖)》,《걷다－걸었습니다》와 같이 소리나 받침이 달라진 단어들이 있다.

소리나 받침이 달라진 단어들은 달라진대로 적는다.

○ 부삽(불＋삽), 숟가락(술＋가락), 화살(활＋살)

○ 듣다—들었습니다, 짓다—지었습니다, 빠르다—빨랐습니다

⑤ 받침없는 글자뒤에 오는 자음소리적기

우리 말에는 받침없는 글자뒤에 자음소리가 오는 단어들이 많다.

○ 보람(ㄹ), 기차(ㅊ), 외투(ㅌ), 어깨(ㄲ), 으뜸(ㄸ)

받침없는 글자뒤에 오는 자음소리는 받침으로 적지 않고 소리나는대로 적는다.

○ 하늘(한울×), 바람(발암×), 니탄(닡안×), 비치다(빛이다×), 오빠(옵바×), 대뜸(댇듬×)

⑥ 토의 적기

우리 말에는 토가 붙어 쓰이는 말들이 아주 많다.

○ 새별눈이, 하늘끝에, 어둠을, 밝은, 불빛과

이때 토는 어떻게 발음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본래모양대로 적는다.

○ 조국이(—기×), 조국은(—근×), 조국에(—게×), 조국으로(—그로×), 조국과(—꽈×)

⑦ 울림소리뒤에서 나는 된소리적기

우리 말에는 울림소리들인 《ㄴ, ㄹ, ㅁ, ㅇ》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들이 적지 않다.

○ 반짝반짝, 훨씬, 옴짝, 몽땅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가 나는것은 그대로 적는다.

○ 언뜻언뜻(언듯언듯×), 글썽하다(글성하다×), 함뿍(함북×), 엉뚱하다(엉둥하다×)

⑧ 《ㅅ》받침적기

우리 말에는 옛날부터《ㅅ》받침을 하여 써오는 단어들도 있다.

○ 풋고추, 웃사람, 짓밟다, 옛날, 뭇별

《ㅅ》받침이 있는 단어들은 본래부터 써오던대로 적는다.

⑨ 뒤붙이 《이》와 《히》적기

우리 말에는《따뜻이》나《조용히》와 같이 뒤붙이《이》와《히》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들이 적지 않다.

뒤붙이 《이》, 《히》가 붙은 단어들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똑똑하지 않을 때에는《하다》를 붙여보고 가능하면《히》로 적고 불가능하면 《이》로 적는다.

○ 유쾌하다○→유쾌히, 고요하다○→고요히, 꾸준하다○→꾸준히

○ 기어하다×→기어이, 가까하다×→가까이, 반가하다×→반가이

⑩ 모음 《ㅖ》가 들어간말적기

《계, 례, 혜, 예》가 들어간 단어들의 《ㅖ》는 《ㅖ》로 적는다.

○ 계산, 례절, 은혜, 예순

그러나 본래부터 《ㅔ》로 된 단어는 그대로 적는다.

○ 게사니, 게시판, 수레, 겨레

련습

1. 다음단어들가운데서 받침없는 글자뒤에 자음소리가 오는 단어들과 울림소리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찾으시오.

   무릎, 한품에, 어찌, 함박꽃, 빵긋, 노래, 딱따구리, 글쎄, 나팔, 학생, 문뜩, 참모습, 함뿍

2. 다음단어들가운데서 맞춤법이 옳은것을 찾고 왜 옳은가를 말하시오.

숨박곡질 숨박꼭질	몹시 몹씨	날새다 날쌔다
그렇듯 그러틋	귀뜨람이 귀뚜라미	바투 밭우
막애 마개	따사로히 따사로이	오실까 오실가

3. 다음단어들의 빈자리에 뒤붙이 《이》와 《히》가운데서 알맞는 것을 넣으시오.

   가만□, 떳떳□, 유난□, 빽빽□, 조용□, 촘촘□, 자유로□, 굳□, 샅샅□, 알뜰□

복 습

1. 다음단어들에서 형태부를 가르고 왜 제 모양대로 밝혀 적었는가를 말하시오.

   ○ 금빛물결우에〔금삗물껴루에〕

   ○ 일당백으로〔일땅배그로〕

2. 다음단어들에서 맞춤법이 옳은것을 찾으시오.

{나타나다 / 날아나다} {숟가락 / 술가락} {살아지다 / 사라지다}

{젇가락 / 저가락} {찌꼴이 / 찌꼬리} {달달이 / 다달이}

3. 다음문장들에서 맞춤법이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왜 그렇게 적어야 하는가를 밝히시오.

○ 그는 옷기슬을 여미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들였다.

○ (나도 언제면 청년동맹원이 될까?) 그는 몬내 그날이 그러졌다.

○ 별안간 산굽이에서 자동차가 불쑥 나타났다.

○ 옥이와 분이는 나란이 걸으면서 무슨 말인가 끝없이 속싹였다.

4. 다음단어들이 어떤 말 적기의 단어들인가를 찾고 갈래별로 묶으시오.

꽃향기, 선뜻, 움씰, 살짝, 듣다—들었습니다, 곱다—고왔습니다, 열렬히, 기러기, 용감히, 신바람, 고스란히

20. 띄여쓰기와 그 원칙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들은 한데 붙여쓰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들은 따로따로 띄여쓰기도 한다.

○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근위대가 되겠다.

그러면 띄여쓰기란 무엇인가.

글을 쓸 때 어떤 단어들은 한데 붙여쓰기도 하고 어떤 단어들은 띄여쓰기도 하는것을 띄여쓰기라고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띄여쓰기를 잘 규정하는것은 우리 글을 빨리 읽고 쉽게 리해하게 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띄여쓰기를 잘하는것은 글을 빨리 읽고 그 뜻을 쉽고 정확히

알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약 띄여쓰기를 바로하지 않고 제멋대로 붙여쓰거나 띄여쓴다면 글을 제대로 읽을수 없을뿐아니라 그 뜻도 잘 알수 없게 된다.

례를 들어《학생들이 천명이 모임에 참가하였다.》라는것을《학생들이천명이모임에참가하였다.》라고 한데 붙여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쓴다면 읽기도 불편할뿐아니라 학생들이 천명이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말인지 학생들 이천명이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천명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말인지 학생들 이천명 이 모임에 참가하였다는 말인지 그 뜻을 알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끊어줄데는 끊어주고 이어줄데는 이어주면서 발음을 잘하여야 하는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붙여쓸것은 붙여쓰고 띄여쓸것은 띄여쓰면서 띄여쓰기를 잘하여야 한다.

그러면 띄여쓰기의 원칙은 무엇인가.

다음시련에서 무엇을 단위로 하여 띄여썼는가를 살펴보자.

◯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첫째로,《자유의》,《평화의》와 같이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썼다.

둘째로,《우리 자라고》,《새 나라》와 같이 서로 다른 품사는 띄여썼다.

셋째로,《강산》과 같이 둘이상의 말뿌리들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된것은 붙여썼다.

결국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되 일부 붙여쓸것은 붙여썼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되 일부 붙여쓸것은 붙여쓴다는것이 띄여쓰기의 원칙이다.

그러면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여쓰되 붙여쓸것은 붙여쓴다는것은 어떻게 한다는것인가.

첫째로, 토가 붙은것은 단어로 보면서 다른 단어와 띄여써야 한다는것이다.

○ 평화의, 락원에서, 세상에

둘째로, 토없이 한덩어리로 된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면서 붙여써야 한다는것이다.

○ 강산에서

셋째로, 토가 붙지 않았어도 품사가 서로 다른 단어들은 띄여써야 한다는것이다.

○ 우리 자라고, 새 나라
대명사 동사 관형사 명사

련습

1. 다음글의 띄여쓰기를 례로 들어서 띄여쓰기의 원칙을 말하시오.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을 드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렸다.

2. 다음글에서 띄여쓰기를 잘못한것을 찾고 띄여쓰기표식을 리용하여 바로잡으시오.

   《얘 꿀꿀아, 어디 네가한일을 좀 말해보려무나.》
   그러나 꿀꿀이는 척 붙어버린 입을 다시는 열지못하였다.

21. 띄여쓰기의 주요규칙들

1) 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① 명사에 토가 붙으면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써야 한다.

○ 나라와 인민의 재산, 조국의 진달래

② 명사들이 토없이 어울려 한덩어리로 된것은 다 붙여쓴다.

○ 강성대국, 사회주의건설, 조선사람, 혁명전통학습, 꼬마박사, 군사놀이, 전반적무료의무교육, 은별중학교, 금골마을

③ 불완전명사는 붙여쓴다.

○ 우리의것이다, 그럴수 없다, 날이 샐녘이였다, 그때문이였다, 모를리가 없었다, 걸어가고있는분이다

2) 수사,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① 수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수를 아라비아수자로 쓸 때에는 밑으로부터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띄여쓴다.

○ 4 235　　38 633　1 465 835

— 수와 우리 말을 섞어쓸 때에는 매 단위마다 띄여쓴다.

○ 12만 3천 8백 92

— 수사가 토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리면 띄여쓴다.

○ 두 학생, 책상 3개, 토끼 다섯마리

② 대명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 대명사는 자립적인 단어이기때문에 띄여쓴다.

○ <u>우리</u> 조국, <u>내</u> 나라, <u>저기</u> <u>저</u> 바다로 가자

— 같은 대명사가 토가 없이 거듭된것은 붙여쓴다.

○ 누구누구, 무엇무엇,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렇게저렇게

3) 동사, 형용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① 토가 붙은 동사, 형용사는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쓴다.

○ 웃으면서 말하다, 밝게 빛나다, 깨끗하여 좋다

② 동사, 형용사의 말뿌리뒤에 동사, 형용사들이 직접 붙은것은 붙여쓴다.

○ 만나보다, 서버리다, 쪼개가다

③ 토 없는 명사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붙어서 동사로 된것은 붙여쓴다.

○ 건설하다, 해방되다, 공부시키다

4) 관형사, 부사, 감동사와 관련한 띄여쓰기

①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다같이 자립적인 단어들이므로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써야 한다.

○ <u>모든</u> 학생, <u>온</u> 마을

○ <u>잘</u> 읽는다, <u>아주</u> 맑다, <u>빨리</u> 달린다

○ <u>아</u> 조국이여!, <u>오</u> 순희로구나.

② 관형사나 부사, 감동사가 다른 단어와 어울려 한덩어리로

된것은 붙여쓴다.

○ 새해, 첫날, 척척박사, 산들바람, 만세소리

련습

1. 다음문장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고 바로잡으시오.
   ○ 책상 우에는 책과연필, 학습장과 지우개가 놓여있다.
   ○ 중학교 모든학생들이 한결 같이 떨쳐나섰다.
2. 다음단어결합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고 그것이 왜 틀렸는가를 말하시오.
   조국의미래, 혁명적학습기풍, 일곱 학생, 우리나라, 공부하다, 달려가다, 새세대, 이것저것, 같기 때문이다, 아주좋았다

22. 명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가 그전에도 몇번 이야기하였지만 띄여쓰기에서는 글자들을 좀 붙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령 <사회주의건설>이라고 쓸 때에 <사회주의건설>이라고 붙여써야지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띄여쓰면 독서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명사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가 붙은 명사는 뒤에 오는 단어와 띄여써야 한다.

다음문장들에서 명사들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띄여썼는가를 살펴보자.

○ 조선은 해와 별이 빛나는 나라이다.

○ 밖에서는 철호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우의 문장들에서 명사는《조선, 해, 별, 나라, 밖, 철호, 노래소리, 가슴, 피, 조국, 별빛, 머리우》들이며 여기에 각각 여러가지 토들이 붙었다.

그러므로 뒤에 오는 단어들과 띄여썼다.

이와 같이 토가 붙은 명사는 뒤에 오는 단어들과 띄여쓴다.

② 명사들이 토없이 어울려 하나의 뜻덩이로 된것은 붙여쓴다.

○ 항일무장투쟁시기, 꼬마보초병, 아침저녁, 소년단맹세, 아침해살, 김광철영웅, 배나무집할머니

명사들이 토없이 어울려 하나의 뜻덩이로 된 말들에는 사람의 성과 이름, 나라이름, 기관이름, 고장이름도 속한다.

○ 리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소년단, 동해중학교, 새살림동, 붉은바위골

그러나 행정구역의 이름을 비롯하여 차례로 내려가면서 이루어진 말들은 매 마디를 단위로 하여 띄여써야 한다.

○ 평양시 중구역 경림동 12반

○ 마풍중학교 제1학년 제8반 림경수

③ 같은 자격으로 쓰이거나 반점(,)으로 이어지는 말들은 띄여쓴다.

○ 공화국영웅 안영애, 박사 김철만선생님, 학생 김영남

○ 과일나무들에는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들이 많이 열렸다.

④ 《자신, 자체, 전체, 모두, 스스로》와 같은 단어들이 앞단어를 되받았을 때에는 붙여쓴다.

○ 영수자신이 만들었다.
지구자체가 돈다.
로동자전체가 일떠섰다.
학생모두가 참가하였다.
영희스스로가 한 일이였다.

⑤ 불완전명사는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므로 언제나 앞에 붙여쓴다.

○ 사회주의는 우리의것이다, 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떠난지가 오래다, 모를리가 없었다, 가는데가 어디냐, 동틀녘이였다

그러나 《등, 대, 겸》과 같은 불완전명사는 띄여쓴다.

○ 상점에는 무우, 배추 등 남새가 많다.
아침중학교 대 노을중학교 축구경기
학급반장 겸 조직담당 부위원장

련습

1. 다음문장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으시오.

서술글은 소설, 동화, 기행문, 수필, 영화문학, 희곡등 문학작품들과 여러가지론문, 신문의 사론설, 보고와 토론글, 선전 선

동글, 강연 제강등 론리적인 글들에도 많이 쓰이고있습니다.

2. 다음단어결합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조선의별, 학생 전체, 어린이 모두, 모음과자음, 그럴 수가 없다, 꼬마 손풍금수

23. 수사와 대명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1) 수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① 수를 아라비아수자로 쓸 때에는 밑으로부터 세자리씩 올라가면서 띄여쓴다.

○ 5 643　28 356　4 268 367

소수점아래의 수를 쓸 때에는 소수점아래로 세자리씩 내려가면서 띄여쓴다.

○ 3.149 75

그러나 수사가 다른 말과 어울려 고유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쓴다.

○ 1211고지, 10000t프레스

② 우리 말로 《백, 천, 만, 억, 조》를 쓰거나 수와 우리 말을 섞어쓸 때에는 매 단위마다 띄여쓴다.

○ 이백오십팔만 륙천 삼백 사십오

○ 12만 3천 8백 38

③ 수사가 토없이 완전명사와 어울린것은 띄여쓴다.

○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세 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

④ 수사뒤에 단위명사가 오면 붙여쓴다.

○ 50명, 3시, 여섯컬레, 39분 28초, 10원, 서른살

《성상, 나이, 평생, 고개, 세월》 등과 같은 명사도 수사에 붙여쓴다.

○ 50성상, 70나이, 60평생, 40고개, 50년세월

⑤ 수사가 겹쳐 쓰이는것은 붙여쓴다.

○ 하나하나, 하나씩하나씩, 하나둘

2) 대명사는 어떻게 띄여쓰는가

① 대명사는 자립적인 단어이기때문에 다른 단어와 띄여쓴다.

○ 내 조국, 우리 식 사회주의, 이 나라, 내 네 말을 잊지 않고있다, 그 동무, 저기 저 바다로 우리 함께 가자

② 대명사도 붙여쓰는 때가 있다.

— 대명사가 불완전명사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 이것, 그이, 저분, 무엇때문에, 그무렵

— 대명사가 거듭된것은 명사나 수사에서처럼 붙여쓴다.

○ 누구누구, 무엇무엇, 너도나도, 이곳저곳, 네일내일, 네것내것

— 대명사가 《자신, 전체, 자체, 모두, 스스로》와 어울릴 때에는 명사에서처럼 붙여쓴다.

○ 나자신, 우리전체, 그자체, 우리모두, 우리스스로

련습

1. 다음수사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 3867325, 23만 8천 9백35
   ○ 연필다섯자루, 셋씩 셋씩, 수십여t
2. 다음단어결합들에서 대명사의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고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를 말하시오.
   우리나라, 내책, 그학생, 저 때문에, 자기 자신, 이것 저것

복 습

1. 다음문장들에서 붙여쓴 까닭과 띄여쓴 까닭을 말하시오.
   ○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다.
   ○ 학과학습은 학생들의 기본혁명과업이다.
   ○ 동무동무 모여라
   어서어서 모여라

우리모두 손목잡고
학교로 가자야

○ 방송에서는 다섯 어린이를 위험에서 구원한 두 대학생의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소개하였다.

2. 다음단어결합들에서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고 그 까닭을 말하시오.

○ 나비와수닭, 용감한소년
○ 배나무집 할머니, 어린이 놀이터, 새끼 토끼
○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그 분
○ 한간호원, 열다섯소년, 연필두자루
○ 여기 저기, 누구 누구
○ 배우며자라다, 공부 하다, 알아 보다
○ 웬사람, 여러학교, 모든공장
○ 빨리가다, 몹시춥다, 울긋 불긋

3. 다음문장들을 띄여쓰기에 맞게 고쳐쓰시오.

○ 만일미제국주의자들이또다시이땅에서침략전쟁을일으킨다면놈들은섬멸적타격을면치못할것이다.
○ 소년단원들은좋은일하기운동을적극벌리며나라와인민의재산을아끼고사랑하여야한다.

4. 다음문장들을 그대로 쓰고 띄여쓰기가 틀린것을 찾아 바로잡으시오.

○ 재미 나는 옛 이야기 책이나 소설, 강연이나 연설같은 것도 여러개의 문장들이 모여서이루어진다.
○ 글을 잘지으려면 문장부터 잘짤줄 알고 잘다듬을줄 알아야 한다.

24. 문장부호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치는가

우리는 글을 쓸 때 여러가지 부호들을 친다.

○ 우리 학교는 2중영예의 붉은기학교이다.

○ 필갑에는 연필, 지우개, 자, 만년필 등 여러가지가 있다.

○ 학습도 생활도 항일아동단식으로!

○ 우리는 언제 만경대로 갑니까?

이와 같이 글을 쓸 때 문장에 치는 여러가지 부호들을 문장부호라고 한다.

그러면 문장부호는 왜 치는가.

다음의 문장들을 읽어보고 그것들이 모두 꼭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문장으로 되였는가를 알아보자.

○ 화분에 꽃이 피였어요.

○ 화분에 꽃이 피였어요?

○ 화분에 꽃이 피였어요!

첫째 문장은 화분에 꽃이 피였다는것을 알려주는 문장이고 둘째 문장은 화분에 꽃이 피였는가를 물어보는 문장이며 셋째 문장은 화분에 꽃이 피였다고 크게 감탄해하는 문장이다.

그러면 왜 꼭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문장으로 되였는가.

그것은 바로 매 문장들에 서로 다른 문장부호들이 있기때문이다.

만약 문장부호들을 치지 않고 그저 《화분에 꽃이 피였어요》라고만 쓴다면 서로 어떻게 다른 문장인지 알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점(.)과 물음표(?), 느낌표(!)를 치면 정확하고 쉽게 알아볼수 있다.

이와 같이 문장부호는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 뜻을 정확하고도 쉽게 알아볼수 있게 하기 위해 친다.

문장부호는 그것을 어디에 치는가에 따라 꼭같이 이루어진 문장이라도 그 뜻이 달라진다.

○ 이제는 그만, 공부하지요.(다른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공부하라고 권하는 뜻)

○ 이제는, 그만 공부하지요.(이제는 공부를 그만하고 쉬라고

권하는 뜻)

그러면 문장부호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우리 글에서 정하여 쓰는 문장부호에는 다음과 같은 17개가 있다.

점(·), 두점(:), 반점(,), 반두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표(《 》), 거듭인용표(< >), 이음표(-), 풀이표(--), 줄임표(…), 괄호(()), 꺾쇠괄호(〔 〕), 밀점(......), 숨김표(○○○, ×××, □□□), 같음표(〃), 물결표(∼)

이러한 문장부호를 쓰는 법을 정한 규칙을 문장부호법이라고 한다.

문장부호들가운데서 특히 느낌표와 물음표를 정확히 쳐야 한다.

강한 느낌을 나타낸다고 하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느낌표를 여러개 친다거나 강한 의문을 나타낸다고 하여 《왜 그랬을가??》 이렇게 물음표를 거듭 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련습

1. 다음의 짝같이 이루어진 문장에서 문장부호를 어디에 쳤는가에 따라 뜻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하시오.
   ◯ 은하가 드디여 최우등을 … 하였어요!
   ◯ 은하가 … 드디여 최우등을 하였어요!
2. 다음의 짝같이 이루어진 문장에서 문장부호가 어떤 섬세한 사상감정의 움직임까지도 나타내고있는가를 찾아 말하시오.
   ◯ 입술이 빠작빠작 타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시간이 한초 또 한초 흘렀다.
   ◯ 입술이 빠작빠작 타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시간이 한초, 또 한초 … 흘렀다.

25. 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표는 어떤 때 치는가

-- 점(·)은 어떤 때 치는가.

• 점은 문장이 끝났을 때 친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은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 어느날 이른새벽이였다.

○ 주체90(2001)년 4월 1일.

• 점은 또한《년, 월, 일》대신에 치거나 기타 준말의 사이에 친다.

○ 주체42. 7. 27

○ 민족최대의 명절 4.15, 9.9절, 《ㅌ.ㄷ》

— 반점(,)은 어떤 때 치는가.

• 같은 자격의 단어들이 토나 이음술어가 없이 련달아 쓰일 때 친다.

○ 우리 고장에는 감, 호두, 사과, 배를 비롯한 특산물들이 많다.

○ 우리 나라는 오늘 《주체의 조국》으로, 《자력갱생의 나라》로 불리우고있다.

• 부름말이나 느낌말의 뒤에 친다.

○ 얘, 연희야, 학교에 가자.

○ 야, 백두산이 보인다!

• 문장의 앞뒤가 바뀌였을 때 친다.

○ 나가자, 판가리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 물음표(?)는 어떤 때 치는가.

• 물음을 나타낼 때 친다.

○ 동화 《곰동산과 토끼동산》은 어떤 이야기인가?

○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무엇인가?

• 의심이나 망설임을 나타낼 때 친다.

○ 누가 왔다갔을가?

○ 어떻게 할가? 마저 보고 갈가?

• 물음문으로 되여있으나 물음이 아니라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에는 느낌표를 치거나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칠수 있다.

○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 아니, 그분께서요?!

-- 느낌표(!)는 어떤 때 치는가.

•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 친다.

○ 아, **정일**봉! **정일**봉!

○ 얼마나 그립던 조국의 품인가!

• 부름말이나 느낌말, 내세움말 등이 강한 느낌을 가지고 쓰일 때 친다.

○ 동무들! 우리모두 이번 학기에도 최우등을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합시다.

○ 이크! 큰놈이 걸렸군.

○ 조국! 그것은 곧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품이다.

-- 인용표(《 》)는 어떤 때 치는가.

• 남의 말을 그대로 옮길 때 친다.

○ 쪽배만 한 구유를 멘 꿀꿀이는 남산만 한 배를 내밀고 뚱기적거리며 대문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짐승들이 이상해서
《아니, 꿀꿀아, 너 구유는 왜 메고 오니?》 하고 물었습니다.
《잔치에 왔다가 먹고만 가겠니, 한구유 가지고 가야지!》

• 글의 제목이나 물건의 이름 같은것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할 때 친다.

○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 《붉은기》호전기기관차

• 《이른바》라는 뜻을 나타낼 때 친다.

○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을 착취하고있다.

련습

다음글을 읽고 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인용표를 각각 어떤 때 쳤는가 말하시오.

부관아저씨가 오솔길로 뛰여왔다. 영철이는 웬 아저씨 한분이 급히 달려오는것을 보자 정신을 번쩍 차리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어떻게 할가?)

달려오는 기세로 보아 멈춰세울것 같지 않았다. 가슴은 널뛰듯 하였다.

(어쩌면 좋담?)

영철이는 길을 비켜드리자고 생각하다가 절로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아동단원들은 절대로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영철아, 이건 장난이 아니고 명령이야!》 하던 대장아이의 말소리도 귀에 쟁쟁히 들려왔다.

(그렇다, 명령이다. 지나보낼수 없다.)

국 어 문 법(중학교 제 1 학년용)
4 판

집 필 최준영, 서재길, 류병설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김송희 콤퓨터편성 김송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리분희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3 판 발행 주체 98(2009)년 12 월 7 일
4 판 인쇄 주체 101(2012)년 6 월 1 일 4 판 발행 주체 101(2012)년 6 월 11 일

교—12—보—644 값 5 원